

한우미당

vol.195

Hanwoo Journal
2023.02



2월호 표지 이미지

30 농가서신

긴박한 위기상황,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읍시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기획특집

32 **한우가격 폭락 진단과 대안**

39 **설 지난 우시장, 현장을 가다**

42 **이달의 한우인**
이원택 국회의원

현장·탐방

46 **유관기관 가이드**
대한수의사회를 소개합니다

50 **대한한우 농가탐방**
청정농장 조영호 대표

56 **중앙회 소값하락 대응활동**



이슈·동향

61 2023 축산-한우 전망

66 2023 명절 한우선물 트렌드

70 글로벌뉴스

74 한우리포트

사양·컨설팅

79 컨설팅
BA플러스

82 수의칼럼-질병·방역
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장

86 전문가칼럼-개량
김병숙 한국종축개량협회 경기인천지역본부장

90 법률칼럼
우양태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92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교육자료

문화마당

102 2023 외식업 트렌드 '맛있는 희소성'

106 새해건강 삼총사 작심삼일 극복하기

110 협회사료안내

112 구독안내



전국한우협회

www.kistock.co.kr

대한민국 축산의
가치와 연속성
Value & Continuity
of K-livestock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Korea International Livestock EXPO 2023

2023. 9. 6(수) ~ 8(금), 3일간 / 대구 EXCO 서관 1층 전홀 및 야외

전시 참가 기업 모집

참가 신청 기간 2023. 1. 9(월) ~ 5. 31(수) ※ 선착순 / 부스 소진 시 조기 마감

참가 신청 방법 1) 박람회 홈페이지 접속 (www.kistock.co.kr)
'참가 신청 안내' 및 '참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참가 신청 또는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 사무국 메일/팩스로 제출
2)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계약금(참가비 50%) 납부

사무국 연락처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사무국
Tel | 02-574-0465
Fax | 02-521-4049
E-mail | kistock2023@gmail.com

'소값 하락, 생산비 증가' 긴박한 위기상황

한우산업 안정화,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읍시다

한우농가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농가들이 가장 즐거워야 할 시기에 소값 하락으로 힘겨운 명절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하니, 협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한우산업은 엄중하고 긴박한 최대의 위기상황입니다.

중앙회는 ▲시장격리를 통한 소값 안정화 ▲한우 도소매 가격 연동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사료안정기금 마련 및 특별법 제정 ▲군급식 한우 암소 공급 ▲미경산우 브랜드육성 ▲자가도축 한시적 허용 ▲한우 소비확대 대책마련을 위해 농협으로, 정부로, 국회로 뛰면서 대처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현장 농가의 어려움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국회와 정부에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투매는 자제하고 품질 우선의 정도경영으로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할 때 정부와 국회의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소비에도 앞장서 주십시오. 나부터 먼저 한우를 더 소비하고 내가 속한 고장에서 한우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소매 가격 연동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한우인 여러분!

외부에 정책 지원을 요청하는 것만큼 우리의 책임 있는 실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한우산업이 바뀝니다. 우리들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변화되었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모든 농가가 참여하여 자율감축에 나서 주십시오. 대규모 농가에서는 더 많은 감축으로 한우산업에 영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위기는 하루 빨리 극복하고, 산업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합니다. **전국한우협회 중앙회는 9만 한우 농가의 든든한 힘을 모아 '한우산업 회생' 하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한우인들은 많은 시련을 딛고 오늘의 한우산업을 일궈낸 저력이 있습니다. 한우인의 단합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함께 넘어 갑시다.

시련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합심하여 이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우리 한우산업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협회가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소값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한우협회장 **김삼주**



위기의 한우산업, 어디로 가야하나

소득분기점에도 못 미치는 송아지 가격
출하와 동시에 두당 300만원이상 손해

명절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19일 전국 한우 도매평균가격이 kg당 1만3,490원을 기록하며 최근 5년 사이 최저가를 기록했다. 명절 이후 다소 회복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명절이 끝나고 지난 2월 1일 열린 양평축협우시장에서는 100만 원대 송아지가 수두룩할 정도로 소값은 여전히 폭락세에 있다.

최근 소값 폭락으로 부채에 시달리던 경북 예천의 한우농가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벼랑 끝에 몰린 한우농가들의 위기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한우농가 몇 명이 죽어나가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것이냐는 암울한 분위기가 터져나오고 있다.

연초에 사료가격 인하가 단행됐지만 한우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산비는 여전히 내려올 줄 모르는 상황이다. '제2의 소값 파동'까지 예견되는 지금, 위기에 빠진 한우농가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소값 폭락
소규모 한우농가에 치명타

암소번식농가 폐업
한우산업 전체 기반 흔들

고금리, 치솟는 사료값에 소값까지 악재 겹쳐

지난 1월 13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한우농가는 번식우 150마리 규모의 농가로 정부가 추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책에 맞춰 축사를 신축하면서 큰 금액의 부채를 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농가는 최근 금리 폭등과 사료값 폭등, 소값 폭락 등의 악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우농가들은 출하와 동시에 마리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거세우 마리당 생산비는 현재 1,000만~1,100만원으로 전국 한우 도매평균가격 700만원을 감안하면 한우농가들은 출하시 마리당 300만~4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최근 한우경락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한 달 사이 손해 금액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전북에서 한우 4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한우농가는 “지난해 12월 한우를 출하했을 때 평균 경락가격이 980만원이었는데 명절 전인 지난달에는 평균 860만원으로 한 달 사이에 출하가격이 마리당 100만원 이상 떨어졌다”며 “출하 당시 평균 등급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도매가격이 그만큼 하락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생산비 절반도 못 미치는 송아지 가격

통계청의 축산물 생산비 통계를 기준으로 2021년 한우송아지(6~7개월령) 평균생산비는 378만원으로 경영비는 262만원 수준이다. 생산비목에서 4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료비다. 자가노임은 25.3%로 사

료와 자가노임이 전체 생산비의 70%를 차지한다. 문제는 규모별로 생산비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한우 농가의 규모별로 자가노동비가 다르기 때문에 송아지 생산비 격차가 큰 편으로 최대 253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모가 작은 농가는 더 많은 생산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의 경영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구조다.

2021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볼 때 한우 송아지 마리당 손익분기점은 378만원이고 경영비로 보면 소득분기점은 262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송아지 가격은 소득분기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1월 19일 기준 전국 암송아지 6~7개월 평균가격은 198만 6,996원으로 200만원을 밑돌았고 수송아지는 287만1,636원으로 300만원에 못 미쳤다. 일반적으로 송아지를 생산해 일관사육하는 농가가 출하시 비육전문 농가보다 손해를 덜 본다고 생각하지만 송아지 가격이 폭락하면서 오히려 일관사육보다는 송아지를 사서 비육하는 게 나은 상황까지 온 것이다.

사료값 상승으로 올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에서 올해 송아지생산비를 추정한 결과 생산비

송아지가격 하락 동향

구 분	'22년 1월	'23년 1월(2주)	전년동월대비
암 송 아 지	286	205	△28.3%(81)
수 송 아 지	384	291	△24.2%(93)
송아지 평균	335	246	△26.6%(89)

자료 : 농협축산정보센터

(단위 : 만원)



는 515만원, 경영비는 369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둘째 주 송아지 평균가격은 246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6% 하락했다. 경영비 369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123만원의 소득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가격이 낮은 암송아지의 경우 164만원으로 소득적자가 더욱 큰 수준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우 사육 마릿수는 올해 357만4,000마리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한우 암송아지는 지난해 평균 274만원으로 전년보다 24.6% 떨어졌으며 수송아지는 386만원으로 15%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한우 송아지 가격은 계속 폭락세여서 하락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때문에 한우업계에서는 소규모 한우 암소번식 농가들의 출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한우업계의 한 전문가는 “소값이 폭락하면 소규모 농가들이 가장 먼저 위기를 겪는다”며 “특히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규모 암소번식 농가들이 폐업을 하면 한우산업 전체의 생산기반이 약화되면서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제2의 소값 파동’ 올까 우려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한우가격 폭락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발생했던 한우파동과 비교되며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의 한우가격 폭락은 2011년의

한우파동과 비슷하지만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소비절벽 현상이 뚜렷해 가격 정상화에는 2011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10년 말 16만6,226호였던 한우농가는 2013년 11만9,056호로 3년 만에 28.4%, 4만7,000호 정도가 줄었다.

사육 포기는 대부분 한우를 20마리 미만으로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했다. 반면 사육마릿수 50마리 이상의 전업농은 같은 기간 16.5%, 2만호가 증가했다.

현재의 상황과 비교할 때 많은 부분이 유사함을 느낄 수 있다. 2011년 당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미경산우 도태장려금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과 폐업지원금 지급, 농협 생축장을 활용한 사육마릿수 조절, 자금지원 확대와 제도개선

2021년 한우 송아지 생산비(마리당)

(단위 : 원)

구 분	규모별				평균 (구성비,%)	
	10두 미만	10~29두	30~49두	50두 이상		
사 료 비	1,714,408	1,762,353	1,795,558	1,831,584	1,811,934	(47.5)
고 용 노 동 비	20,842	17,059	16,865	43,267	34,831	(0.9)
기 타 물 재 비	1,092,196	1,010,265	928,923	721,000	806,794	(21.2)
〈 소 계 〉 [A]	2,827,446	2,789,677	2,741,346	2,595,851	2,653,559	(69.6)
내급비	자가노동비	2,956,664	1,566,960	1,142,866	677,846	964,916 (25.3)
	자본용역비	192,015	189,762	179,209	156,740	166,800 (4.4)
	토지용역비	40,155	41,347	35,965	25,244	29,663 (0.8)
〈 비 용 합 계 〉 [B]	6,016,280	4,587,746	4,099,386	3,455,681	3,814,938	(100.0)
〈 부산물수입 〉 [C]	68,996	41,720	30,914	31,347	34,395	
경 영 비 [A - C]	2,758,450	2,747,957	2,710,432	2,564,504	2,619,164	
생 산 비 [B - C]	5,947,284	4,546,026	4,068,472	3,424,334	3,780,543	

자료 : 축산물생산비통계(2021년), 통계청

주 1) 송아지는 6~7개월령, 고용노동비는 상용고용인, 임시고용인 등 사양관리 노동력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평가액, 자가노동비는 축산경영에 투입된 자가노동력 평가액

2) 경영비는 생산비에서 경영 내부에서 조달한 자가노동, 자기자본, 자गत지 비용을 제외한 경영 외부에서 조달한 비용

등으로 배합사료 가격안정 등이 추진됐다.

정책효과는 2014년부터 나타났다. 경제 성장을 위한 저금리 정책 등도 함께 추진돼 한우고기 소비가 증가했다. 이 여파로 한우고기 가격은 2014년 이후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8년부터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대두돼 2019년부터 암소감축사업이 진행됐으나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소비 급증으로 사육마릿수는 감축되지 않았다.

한우 사육마릿수를 감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의 여파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한우 가격이 폭락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지난해 2월 이후 대미환율 강세로 비육용

배합사료의 kg당 가격이 2020년 412원, 2021년 462원보다 상승한 551원을 기록하면서 입식·번식의향 감소로 암소 도태가 증가했다.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이자 상황에 대한 부담,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소비침체가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이형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사육마릿수 증가로 내년까지 도축마릿수가 100만마리 수준까지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무관세 수입소고기 연내 미소진 한우가격 하락 지속적으로 유도

정부 정책실패 인정...가격안정 특단대책 마련
자조금 증액-사료구매자금 확대 등 즉각 시행



고금리와 물가 인상 등으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면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한우고기 소비 증가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며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한우고기 수요층이 이탈하는 경우 더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한중 농협 축산경제 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는 금리 하락을 기대하거나 소비 바우처 등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이 최선”이라며 “군급식, 학교급식 등의 안정적인 판로 구축과 한우 도소매가격 연동제가 범 정책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우업계, 대책마련에 ‘총력’ 요구

한우업계는 지난해부터 한우생산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을 경고했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한우 거세우 1등급 가격이 1만5,000원 대로 폭락하면서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우업계는 이 같은 한우가격 폭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정부의 지난해 할당관세 무관세 수입소고기 10만톤을 지목하고 있다. 사육마릿수 증가와 금리인상, 소비위축 등에 더해 정부가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수입한 소고기 10만톤은 연말까지 소진되지 않아 한우가격 하락을 지속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한우농가들은 정부가 정책적 실패

를 인정하고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가들은 즉각적인 대책으로 축산자조금 증액과 농가사료구매자금 확대, 금리 인하,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등 농가에 직접적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꼽고 있다. 또한 전략작물 직불 하계조사료 추가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확대 등 한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산안정책도 요구되고 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일시적 한우 수매를 통한 가격 안정으로 폭락수준인 한우 가격 하락세를 다소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사료가격 인상분 차액 지원과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암소도축을 위한 도축장려금 지원, 범 정부차원의 소비촉진 대

책, 소비자 할인쿠폰 지원, 군납·기업 급식 확대, 소비촉진을 위한 유통단계 가격 연동 점검 등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국한우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한우가격연동제를 논의하는 한편 각종 인터뷰 등을 전개하며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생산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료가격안정을 위해 사료업계에 사료가격 인하 단행을 촉구하며 상생과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한우조합장협의회는 한우협회와 함께 지난 1월 17일 농식품부에 자가도축 일시 허가, 암소번식우 할인 판매 등을 포함한 7개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에 들어간 한우가격 안정대책에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제조비 단가 상향과 유희 국공유지를 활용한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등 생산비 절감대책은



물론 소비자가격 연동제, 시장격리를 통한 소가격 안정 지원정책 등 소비촉진대책과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같은 제도개선 대책 등이 포함됐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소비자 가격 연동제를 비롯한 한우 쿠폰 지원 확대 등 소비 촉진 대책과 군납 물량 확대를 통한 소가격 안정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미경산우 브랜드 추진 같은 제도마련과 함께 근본적으로 한우산업의 기반을 지지할 수 있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수급조절 정책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한우수급조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한우 산업이 침체 국면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율감축, 사료가격 안정화, 소비촉진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창열 전국한우조합장협의회 회장은 “현재 사육마릿수 50마리 이상의 농가는 자립기반이 마련됐으나 한우 가격 폭락의 여파를 이기지 못하는 소규모 번식 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우 산업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추진되지 않을 시대기업이 한우산업에 진출하는 상황이 벌어져 농가라는 말이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한우조합장협의회는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40%, 사료업체가 30%, 농가가 30% 부담해 기금을 조성하고 소고기 자급률 목표치 설정, 중소규모 번식 농가 육성 등도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분	한우가격 상승기	한우가격 하락기	한우가격 급락기
기간	'19.12.~'21.9.	'21.9.~'22.9.	'22.9.~'22.12(4주)
가격동향(원/kg) (한우평균 도매)	18,506 → 22,620 (4,114원) ↑	22,620 → 20,031 (△2,589원) ↓	20,031 → 15,029 (△5,002원) ↓
월평균 변동율	0.95%	△1.01%	△9.13%
주요 사건	코로나 팬데믹(가정소비 증가) 경기호황(주거, 부동산 상승)	코로나 엔데믹, 물가상승, 경기침체 이자 상승, 가처분 소득 감소	경기침체, 이자 상승 10만톤 무관세 수입, 이태원참사 국가예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주: 월평균 변동율은 복리(산식: $r = \exp((\ln(7\text{월가격}) - \ln(1\text{월가격}))/\text{경과개월수}) - 1$)

구분	'21년 12월(A)	'22년 12월(B)	변동(B/A)
한우평균 도매가격(지육) (원/kg)	20,639	15,029	27.2%(△5,610) ↓
등심 1등급 소매가격 (원/kg)	108,780	99,554	8.5%(△9,226) ↓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주: '21년 12월 가격은 월평균, '22년 12월 가격은 12월 4주(12.19~23) 평균

자율감축, 사료값 안정화, 소비촉진 체계적 추진 도소매 가격연동성 문제도 소비활성화 주요과제

도소매 가격 연동성 문제 해결이 '핵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매가격에 잘 반영되지 않는 도소매 가격 연동성 문제 해소도 소비 활성화에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주차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7.2%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은 8.5% 떨어지는 데 그쳤다. 가격 상승기에는 도매가격 상승분을 소매가격에 적극 반영하는 반면 가격 하락기는 소매가격 반영이 소극적이라는 게 한우정책연구소의 분석이다.

최근 한우 도매가격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매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어 소비자들은 떨어진 한우가격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불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넷째주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12월 대비 27.2%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소매가격 등심 1등급은 8.5% 떨어지는데 그쳐, 도소매가격 연동제의 필요성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2021년 한우고기 유통비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매가격을 100%로 할 때 평균 농가 수취율은 51.9%, 유통비용 비중은 48.1%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도소매 이윤이 18.1%, 유통단계별로는 소매단계 36.1%, 업체별로는 대형마트의 이윤과 소매단계 마진이 가장 높았다. 이에 한우정책연구소는 가격 하락기 대형마트의 가격 연동성 제고를 촉구하고 영향력 있는 농협의 판매채널을 통해 소매가격 인하를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우전문판매점의 유통플랫폼 구축으로 가격 연동성 영향 발휘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평축협우시장의 하루

“34번”

“땡기지 말고 살살 달래. 땡기면 안가는 송아지여 가는”

지난 2월 1일 오전 8시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양평축협우시장에서는 소하차작업이 한창이었다. 명절이 끝나고 처음 열리는 우시장. 소값이 급급해 경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를 따라 나선 어느 한우농가의 송아지를 달래라는 말에서 애정이 묻어났다.

한두달 간격으로

1,200만원 → 950만원 → 810만원

“설 전에 소 7마리를 냈는데 5,900만원 나왔어요. 1++ 짜리 소도 여럿이었는데 소값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마리에 810만원 꼴을 받은 건데 사료가격 생각하면 저는 그냥 아침 저녁 일어나서 고생만 한거예요. 주위에서는 손해 안봤으니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경매를 기다리는 대기실에서는 떨어진 소값을 앞다퉈 말하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1++ 한우를 몇 달 전에 1,200만원에 출하했어요. 그런데 설 명절 앞두고는 950만원 받았습니니다. 1++ 한우 키우려면 사료가값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1++도 이제 취급 못받는 거예요. 그거 잘 키우겠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한숨을 쉬는 한우농가의 주름살이 더욱 깊다. “일단 생산원가가 안 나옵니다. 소 한 마리에 사료가격만 450만~460만원 들어가요. 800만원도 못 받으니 사실 송아지 가격 생각하면 이미 마이너스예요. 지금 출하하는 소들이 다



400만원 이상 하던 송아지들이라고요.”
양평에서 소를 가져온 한 운송업자는 새끼를
밴 암소도 꽤 나온다고 귀띔했다.
“아주 어린 새끼소도 나오고 임신한 암소도 우
시장에 나오더라구요. 소 팔아서 사료사서 집
에 있는 소 먹이고, 다시 소 팔아서 사료 사서
소 먹이고. 정말 소가 소를 먹는 상황입니다.”

소값 하락으로 떨어지는데 한우고기 값은 제자리

다른 한 쪽에서는 소 가격을 이야기하는 농가
들에게 손사래를 치며 핀잔을 주는 한 농가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가격 떨어진 게 문제냐고. 소값이 떨어졌으면
한우고기 값도 떨어져야지 아직도 얼마나 비
싼데. 마트가서 좀 물어봐요. 소값 떨어졌는데
고기 값은 왜 안떨어지냐고.”
우시장에서 만난 한우농가들은 떨어지는 소
값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한우고기 가격
이 지금의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
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주 한우도매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대비
27.2%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등심 1등급의
소매가격은 8.5% 떨어지는데 그쳤다. 생산현
장에서 소 가격이 30% 가까이 떨어지는 사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한우고기 가격은 겨우
10% 떨어진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이 대한민국 소비시장을 강타하는
사이 한우농가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소비자가격은 떨어지지 않아 한우가격 폭락
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마리당 최하 100만원
밀지는 시세

떨어진 소값에
'시름 깊은' 농가들



소규모 암소번식 농가 제일 큰 피해

문제는 떨어진 송아지 가격에 타격을 받는 농
가들이 대부분 소규모 암소번식 농가들이라
는데 있다.
“송아지 가격이 원체 좋았어요. 한 마리에
600만원도 넘고 그랬는데 뭐. 그러니까 작은
농가들도 번식우를 늘렸어요. 그렇게 늘어난
소가 한 두 달 안에 줄겠어요? 소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여주에서 번식우 농장을 하고 있다는 한 한우
농가는 주변의 암소번식우 농가들이 어려움
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현장 소가격
30% 이상 떨어져도
한우고기 하락률
10%에도 못 미쳐



송아지를 유심히 보며 가격을 입찰하던 한 농
가는 빈 우사가 보기 싫어 송아지를 사러 나왔
다고 말했다.
“지금 송아지 사는 사람들 심정은 뭐 얼마나
즐겁겠어요. 미래를 모르는데 한 뭉트 보려고 송
아지 사는 거 아닐겁니다. 우사가 비어있으니
송아지 사러 나온거죠. 그래도 계속 하던 건데
어렵다고 소 그만 먹일 수는 없잖아요.”
경기도 양평과 여주, 남양주, 가평, 광주 등 경
기도 다섯 개 시군에서 모이는 양평축협우시
장은 그나마 소 가격이 좋은 편이다. 다른지역
우시장은 한 마리 씩 경매하는데 비해 양평축

협우시장은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경매하고
있다. 따라서 유찰을 대비해 본인이 필요한 수
량보다 많은 소를 입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100만원 남짓한 송아지도 여러
마리가 나왔다.
“지금 한우 키우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키우
는 거 아닙니다. 송아지 사서 조사료 먹이고 사
료 먹이면 아무리 잘 키워도 마리당 100만원
은 밀집니다.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요.
한우농가들이 얼마나 신경이 예민한지 가격
산정을 하기도 겁이 납니다.”
양평우시장에서 가격산정사로 일하는 한 농
가는 최근 한우농가들의 상황이 더 안좋아졌
다며 걱정했다.

40년 한우를 키웠는데 더는 자신이 없네요

이날 최고가격을 받은 송아지는 암송아지로
465만원을 받았다.
최고가격 낙찰을 받은 농가는 양평에서 소를
제일 잘 키운다고 소문이 난 분으로 40년 넘
게 한우를 키운 농가였다. 최고가격을 받은 소
값이 어떠한냐는 질문에 ‘만세’라고 짧게 답했다.
“좋아서 만세가 아니라. 그만두고 싶어서 외치
는 만세입니다. 이렇게 위기가 자주 찾아오는
데 어떻게 한우 계속 키우겠습니까. 두손 들
었어요. 번식우 키우고 있는데 40마리로 줄었
어요. 이제 나가는 소들만 팔면 정리하려고 합
니다. 40년 한우를 키웠는데 더는 자신이 없
네요.”

이달의
한우인

‘한우산업기본법’ 토대 마련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시발점

이원택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시·부안군)은 지난해 7월 축산분야 탄소 중립 정책에 따른 농가 지원을 위해 ‘탄소 중립에 따른 한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한우산업 기본법의 토대가 된 이 의원의 ‘탄소 중립에 따른 한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은 탄소 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 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 탄소 저감을

위한 경축 순환 농업 전환 △한우 수급정책 수립 △한우 품질개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해 한우 산업의 발전과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한우의 수급 조절과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말은 한우농가들에게 큰 힘이 됐다.

전국한우협회는 이 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우산업 기본법 발의까지 이어가는데 성공하여 여야의 한우산업 기본



66
‘탄소 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발전과 전환 지원법’ 대표 발의
수급 조절·경영개선 자금 등
실질적인 지원 필요

99

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시발점을 찍은 이 의원의 ‘한우산업 발전과 전환 지원법’은 한우산업 안정화라는 한우농가들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을 ‘이달의 한우인’으로 선정하고 인터뷰를 진행한다.

Q 한우산업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업은 국내 농업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하며 식량 주권의 최일선에 있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한우 산업은 축산업 생산액의 28%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주요 산업으로 1990년 9,000억원에 불과했던 한우 산업 생산액이 2020년에는 5조7,000억원으로, 약 6배 성장했습니다. 특히 한우는 대

한민국 유일한 고유의 유전자원이자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품종으로,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이 되는 대한민국 축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Q 최근 한우산업 업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한우산업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우산업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금리인상,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되고 소비는 위축되어 한우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쇠고기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신규 FTA(자유무역협정)도 검토되고 있어 한우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업계 전반적인 경영 부담과 근심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경청투어 전북편'에서 이원택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Q 한우산업의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9개국 이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하였으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우의 탄소 저감 경쟁력은 세계 상위권 수준입니다.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자급률을 높이고 수소보다 개량이 뒤떨어진 암소 개량 속도를 높여 향후 탄소 저감을 이끌어야 합니다.

Q 한우산업이 빠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 조사료 생산 농가에 대한 직불금 확대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명무실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및 금리인하,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 한우 농가의 경영안정과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66
경축순환, 식량안보 확립, 일자리 창출 등
한우산업은 농촌사회 선순환 할 수 있는 힘
99



Q 법안 발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어 축산업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한우산업발전법을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 및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우산업 발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Q 한우농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우는 한국 고유의 유전자원이자 순수 혈통을 유지하는 품종으로 오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민족 고유의 산업입니다. 그런데 2011년 소가격 파동에 이어 최근 소가격이 폭락하는 또 한번의 위기가 한우농가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여러 번의 위기를 이겨낸 한우농가들은 또 한번 힘을 내 민족산업을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천년을 견뎌낸 한우산업의 역사가 새 시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 한우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대한수의사회

‘소통하는 대한수의사회, 함께하는 대한민국 수의사’를 모토로 올해 창립 75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수의사회는 전국 2만여 수의사 회원들과 함께 동물의 건강과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산업동물의 진료와 축산물 위생 검사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수의사회를 소개한다.



허주형 회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협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우농가 여러분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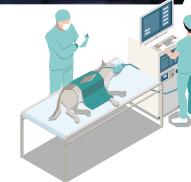
1948년 설립돼 올해 창립 75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수의사회는 전국 2만2,000여 수의사 회원들을 대변하는 단체로 수의사의 전문성 향상과 수의업무의 적절한 수행,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동물진료체계를 확립해 동물의 건강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산업동물의 진료와 축산물 위생 검사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수의과대학은 1998년부터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6년제 학제를 개편해 강화된 교육으로 더욱 전문성 있는 수의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동물진료체계 확립
동물 건강-회원 권익 보호

산업동물 진료-축산물 위생 검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대한수의사회의 핵심적인 업무를 꼽자면.

대한수의사회는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를 받은 모든 수의사가 당연히 회원이 되며 수의업무의 적절한 수행, 수의학술의 연구·보급, 수의사 윤리 확립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의사 회원의 권익보호, 동물진료와 가축방역 업무 개선·발전, 식품안전, 공중보건 등 수의업무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민보건과 국가발전에 기여, 동물보호와 복지 등을 위해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물의료 수준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약 5,000개의 동물병원에서 8,000여 명의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1,300개의 동물병원은 전국 각지에서 소, 돼지, 가금 등 산업동물의 진료를 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소를 진료하는 동물병원입니다.

반려동물의 양육인구가 늘고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대부분 동물병원하면 반려동물 분야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분야의 의료는 사람 의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해 심층적인 진료나 고난도의 수술 등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출장진료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과거에는 다양한 기구나 장비 등의 사용이 제한됐지만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소형화되고 휴대가 간편한 의료장비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산업동물 현장에서도 이를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수의사 양성 등 인력 양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산업동물수의사는 이러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견인하는 인력으로 대한수의사회에서도 산업동물 수의사의 양성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서울대학교와 함께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을 설립해 2015년부터 산업동물 수의사와 수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전국의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해 산업동물 분야에 대한 미래 수의사들의 관심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산업동물의 진료환경을 갖추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유통 등 전반적인 동물의료체계의 개선,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축질병치료보험의 확대, 농장전담수의사 제도 도입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니 한우 농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우협회와 연관된 수의사회 업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제도의 목표는 일정 보험금을 부담하는 농가에 평상시에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진료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수의사를 부르는 부담이 줄어들어 수의사가 농가를 더 자주 방문하게 되면 질병 예방과 조기 대응으로 동물도 더 건강하게 자라고 결과적으로 농가에도 이익이 됩니다. 충청남도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료비 보조사업과 유사하며 실제 해당 사업에서는 적절한 예방과 사양관리를 통해서 농가에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의 확대 농장전담수의사 제도화 노력



대한수의사회의 올해 목표와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동물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되고 있는 회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위원회 설치 등 회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동물의 진료 환경 개선으로 산업동물 수의사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과 정책들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종합적인 동물의료 정책 마련을 위해서 지속 협의하고 동물의료와 관련된 전담 조직 마련과 관련 업무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우 사료 농가를 찾아서

생산비 낮추는 노력 최우선
‘가장 훌륭한 답을 찾다’

청정농장_조영호대표

곡물가 변동폭 반영 가격 탄력적
등급 출현율로 우수성 증명
대한한우사료 사용농가 점차 늘어

66

99



시설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다 2004년부터 본격적인 전업농의 길로 접어든 청정농장 조영호 대표는 번식우 6마리로 시작해 20여 년 만에 400마리 일관사육 농가로 성장했다. 최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산업에 대해 그는 “위기를 겪으면 더욱 단단해진 다”고 말한다.

2003년 호주 생우 유통, 2011년 한우 파동 등 한우산업의 위기속에서 한우산업을 굳건히 지키며 농장을 키워온 그는 한우산업에 대한 의지와 신뢰가 있으면 위기는 기회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위기의 시간들을 겪으며 시장의 흐름을 읽게 됐다는 조 대표는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경영비 절감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비 절감의 핵심을 사료가 격을 절감할 수 있는 대한한우 사료로 꼽았다.

위기를 기회로, ‘흐름’을 읽다

시설하우스 농사를 짓다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한우 전업농의 길로 들어선 조 대표는 농장을 확장하며 4년 만에 빚이 7억 원까지 늘었다.

“2008년 농장이 커지고 나니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있더라구요. 그 빚을 2011년까지 다 갚았습니다. 빚을 갚아 마자 한우 파동이 있었지만 위기를 극복해 낸 주위의 선배들을 보면서 나름 공부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한우산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오히려 과감한 투자를 했고 그것이 성공했습니다.”
소를 팔아서 빚을 갚자는 아내의 만류도 뿌리치고 규모를 더 늘렸던 조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한우사료를 사용하고 물량이 확대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조합원도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국한우협회의 사료는 협동조합의 이념과도 아주 잘 맞았습니다. 처음에 완주한우협동조합에서 대한한우사료를 쓸 때는 소값이 안정적이어서 수금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용농가의 95%가 현금결제를 했고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의 수익을 사료 사용농가들에게 환원했습니다. 대한한우 사료를 쓴 농가들이 두 달 만에 사료비 30%를 절감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초기 판매 600톤에서 두 달 만에 1,000톤으로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사용농가 성적 좋아 대한한우사료 인기

대한한우사료의 품질이 좋고 곡물가격의 가격변동 폭을 바로 반영해 가격을 탄력적으로 하면서 관내 농가들은 물론 임실과 익산 등 대한한우사료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점점 늘고 있다.

“최근에는 농가들이 대한한우사료에 대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사료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하락요인이 있을 때는 사실상 배합사료 가격에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국한우협회에서 대한한우사료를 만들어내면서 사료가격 인하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이것을 체감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대한한우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격적인 측면보다 대한한우사료 사용농가들의 등급 출현율을 보고 대한한우사료를 선택하는 농가들도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대한한우사료를 사용한 농가들의 출하성적

전락은 성공했다. 빗을 모두 갇고 지속적인 투자로 농장을 늘려 현재는 400마리 규모의 일관사육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주변 농가들이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묻습니다. 저는 위기는 길게 가면 5년까지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기를 이겨내면 반드시 사업적인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위기의 순간마다 소규모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폐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잘 해결해 주는 것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길입니다.”

대한한우 사료, 경영비 절감에 핵심

완주한우협동조합의 초기 이사장직을 맡았던 조 대표는 지역의 한우농가들이 하나로 모여 상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협동조합의 기틀을 마련했다. 조 대표는 완주한우협동조합

이 좋아요. 사료가격이 싸고 결과가 좋다면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비싼 한우사료를 쓸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이전보다 결과가 더 좋다는 농가도 있습니다.”

조 대표는 이전에 사용하던 민간사료업체와 비교하면 마리당 생산비가 20% 정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초반에 사료를 바꾸기 힘들어하는 농가들에게 조 대표는 써봐야 알 수 있다고 자신했다.

“사료가격이 싸니까 ‘별로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첨가제나 원자재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원재료를 자세히 살폈고 전국한우협회에 대한 신뢰로 대한한우사료를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성적도 좋았습니다. 초반에는 사실 반신반의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꾸준히 먹이며 주위의 농가들에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한우농가들의 구심점 역할 자처

“완주는 사료회사가 난립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한우협회가 대한한우사료로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물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2011년부터 합우협회 완주군지부장을 하면서 지역에 봉사하고 한우산업을 위해



일해왔다.

“한우협회는 생산자 운동조직으로 한우농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라는 생각에 지부장 역할을 하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한우를 수십년 동안 키우면서 느낀 것은 ‘나혼자 살수 없다, 더불어 힘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 대표는 지역의 소규모 농가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2011년 완주한우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한우협회 지부장을 하면서도 지역의 한우농가들을 지켜내겠다는 신념이 강했습니다. 완주한우협동조합을 설립할 때는 한우농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주한우협동조합의 한우 판매장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다.

“완주한우협동조합 한우 판매장은 제가 꿈꿨던 지역 한우농가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한우 판매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한우의 위기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우농가들이 더욱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생산비를 낮추는 노력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한우사료는 그 질문에 가장 훌륭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전국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 농가가 원하는 적기 출하
- 경매 상장 수수료 無
- 운송비 절감
- 하자육 발생시 농가 손실 방지제도 운영



• 한 차(8두 기준) 출하, 100만원 이상 이득 ⇒ **농가수익개선**

전국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유통망은 부산물 제값받기와 적기출하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한우협회 전용 도축유통망입니다.
경매 상장수수료가 없고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영안정에 유익합니다.

◆ 출하 신청방법 (☎ 02-525-1053)

- 담당 : 유통사업국 박호경 대리(내선 207)
- 시기 : 출하 계획 14일~30일전 협회로 신청
- 접수 : 중앙회 담당직원 연락 또는 시군지부 접수
- 팩스 : 02-525-1054

◆ 정산기준

구분	거세우	암소	비고
출하규격 (지육중량)	27개월령 이상 36개월령 이하 380kg이상 600kg이하	26개월령 이상 60개월령 이하 300kg이상 550kg 이하	※ 등심단면적 기준 (거세) 86cm ² 이상 110cm ² 이하 (암소) 76cm ² 이상 100cm ² 이하
가격적용 기준	농협 음성공판장 화,수,목,금 평균가	음성공판장 화,수,목 평균가	
부산물	두·내장·우족은 농협 음성공판장 가격 적용		우피는 당해 도축장 가격에 따름
하자육 처리	근출혈 보상보험 두당 8,500원		하자육 금액이 kg당 1,000원 이상으로 발생시 일부 자부담 발생
출하장려금	(거세, 두당 7만원) 도체중 420kg~560kg이하, 월령 30~34개월이하, 등심단면적 86cm ² 이상 (암소, 두당 12만원) 도체중 350kg~550kg이하, 월령 28~60개월이하, 등심단면적 76cm ² 이상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제27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신청자 : '전국한우협회'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모두 가입된 회원
- 출품개체

구분	요건
등록구분	혈통등록우
거세여부	거세실시
생년월일	2022년 4월 1일~6월 30일
출품형태	개인 및 단체 (브랜드)
출품우 생산지	자가생산 송아지 (친자확인을 필한 개체) ※ 수정란이식으로 생산된 경우 공란우는 자가소유한 개체
출품예정우 입식, 출품두수	3두 입식, 1두 출품(농가자체 선발)
친자확인	참가신청일 기준 '친자일치' 개체
참가회비	60만원
출품우 사육기간	27~30개월령 ('24년 10월 도축예정)
공판장 도착체중	700kg 이상
신청자격 제한	지난 대회 ('22년 25회) 출품축의 육질 2등급 이하 판정 농가는 출품신청 대상에서 제외



2. 신청기간

2023. 2. 1(수) ~ 2. 28(화) <신청기간 준수>

※ 2월 28일 이전 285농가 접수가 완료될 경우 조기 마감

3. 신청방법

[붙임2] 제27회 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및 우편 발송

※ 참가신청서 하단 보내는 곳 참조

4. 제출서류

- 1) 참가신청서
- 2) 친자확인 분석정보 (DNA정보 포함)
- 3) 신청축의 소유자가 신청자의 직계가족 소유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 친자확인

참가신청 대상우 + 어미소의 모근을 1조 단위로 채취 (*분석비용 자담)

※ 별첨1 「제27회 전국한우능력평가 대회 친자확인 요령」 참조

※ 분석기관에 모근발송 시 「제27회 전국한우능력평가 대회 신청서 사본」을 반드시 동봉 (대회 출품축 확인, 분석 결과회신 등)

6. 참가회비

60만원 [농협 355-0080-3831-73 / 예금주 :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추진협의회]

※ 반드시 대회 신청자와 입금자명이 동일하게 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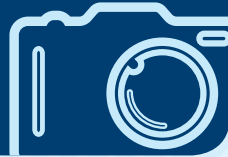
※ 대회규정 제7조에 따라 참가회비를 신청마감일(2.28)까지 납부하여야 참가 가능

7. 요청사항

참가신청서 제출 및 참가회비 납입 후 반드시 확인 요망

02-588-9301(내선121)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 이경수 차장

사진으로 본 중앙회 소값하락 대응활동



2022.12.7

김삼주 회장-이희대·한양수 부회장,
정항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



2023.1.2

농협 경제지주 축협조합장협의회
1차 소값하락 회의



2023.1.11

한우협회-한우자조금, 음성공판장 방문
출하조절 요청 및 도매가격 안정 요구



2023.1.17

한우협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한우수급 가격안정 대책회의

한우 값 폭락 대응 추진 현황

협회 요구사항에 따른 정부 추진 방향

○ 한우 수급 안정 대책(안)

주제	정부 추진방향	협회의견
한우 할인판매 대폭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판매) <u>하나로마트 중심(1천개소)</u>, 최대 50%까지 동시 할인행사연중 실시 • (예산) <u>국비 100억원</u>(신규, 자조금 추가 지원), <u>농협 220억원, 자조금 80억원</u> • (농협) 전국 할인행사 30~50% 할인, 소비자가격 20%인하 • (자조금) 대형마트 할인폭의 일부(약 5% 수준) 지원 <p>*대형마트 1등급 판매 참여 유도</p>	<p>(협회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국비 100억원 및 농협 220억원 등 할인판</u> <u>매를 위한 예산 증액 환영</u> - 다만, 추경 통과 후 가능하므로, <u>예산 통과</u>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협조 요구
한우 수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액지원) 육류 등 한우 대체 시 차액의 50%(최대 4천원/kg) 지원 • (예산) <u>국비+지방비 500억원, 자조금 20억원 등 520억 투자</u> • (지원) 급식 납품업체, 가공업체 중 <u>전년 대비 10%이상 한우 추가 사용 물량에 한</u> <u>해 지원</u> 	<p>(협회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 군급식 확대, 기존 물량이 70%로 삭감됐고, 대체로 수입산 비중은 없으므로, 육류 중 <u>한우의 비중 확대 건의</u> • <u>도·지자체 내 공공급식(기업체, 학교) 확대</u> 를 위한 업무협조 강화
가격연동 민간소비 촉진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농협 축경에서 모든 하나로마트 한우고기 권장판매가격 결정, 개별 매장 별 가격차 최소화(±10%내) • (대형마트) 지속적인 소비자가격 동향 확인 및 마트별 가격 주기적 공표, 판매 가격 인하 유도 • (축평원·소비자단체) 연구용역(주 1회), 소매가격 전수조사 후 정보 대외공개 <p>※ 주기적 가격 공표 모니터링, 지도·점검</p>	<p>(협회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 통합 플랫폼 - 소비활성을 위한 한우판매점 정보, 답례품 정보를 수집해 소비자 가격 비교제공 등 추가건의 • <u>유통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형마트 가격 공</u> <u>표에 조달가격 추가</u> - 미국 육용우 계약정보 공개제도 시범 운용('23.1)
중도매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자금 지원) 중도매인 대상 무이자 결제자금 지원 규모 2배 증액, 경매시장 수요 확대(농협) <p>*지원규모 480억원 → 800, 대출기간 90일 → 180</p>	<p>(협회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견 없음

한우 값 폭락 대응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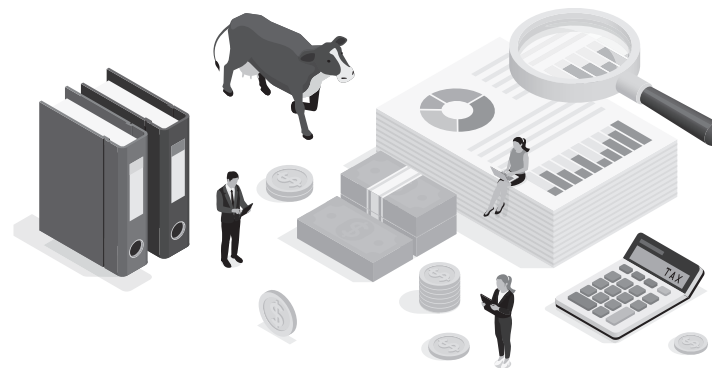
주제		정부 추진방향	협회 의견
수출 확대	한우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확대) 한우 수출 협의회 구성* *축평원 수급조절협의회 사무국 중심 운영-한우 수출 확대를 통해 2백톤의 추가 수요 창출-홍콩(수출중), (말레이시아) 수출작업장 등록중(2~3월 중 완료), (태국) 3단계중, 구역역 청정화 계획·성장촉진제 미사용 대책 질의, (필리핀·싱가포르) 수입허용 요청, 구역역 청정화 이후 공식요청 답변, (사우디) 수입허용 요청• (지원 확대) 홍콩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 조사 및 물류비지원, 해외 한우 브랜드 인지도 제고-aT 한우 수출 전담반 신설	<p>(협회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한우수출분과위원회(16년부터 한우협회 운영중) 중심 통합운영</u>(농식품부·aT·축평원 등 관계기관 협조 강화)-현재 홍콩 연 40~60톤 내외 수출되고 있으며, 2백톤 달성방안 및 청정국 지위·인증·협상에 따른 추진절차 필요-소값 안정을 위한 단기방향은 아니나중장기적 방향으로의 수출 확대는 긍정적
	사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대 지원) 사료구매자금의 한육우 비중 60%까지 확대·지원-’21~22년 50%→’23~25년 60%• (농가 입금) 농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대출액 농가 직접 입금• (기준 확대) 우선순위 농가 기준 변경-소 150두 이하→소 100두 이하• (가축 담보) 가축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현 시세 40%까지 가능)• (자가 배합) 자가 배합사료 제조 확대를 통한 사료비 절감 및 경영안정 유도-컨설팅 확대, 제조기 확대, 부산물 업체 연계 채널 구축	<p>(협회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사업비 총액 상향 필요, 사료구매자금 확대 및 무이자 지원 요구</u>-총액 상향 없이 기존의 1조원에서의 60%로 10% 확대안은 효과 미미-1.8%→무이자 지원 건의• <u>사료안정기금 정부 추진안 마련</u>-사료값이 계속적으로 불안정하고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므로, 가격안정을 위한 안정기금 준비대책 추진• <u>2월 농협사료 및 민간사료 사료값 인하건의</u>-최고점 대비 인하 요인(35원 이상 발생, 현재 농협만 20원 인하)
농가 경영 개선	조사료 생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확대) 전락작물직불제를 통해 논·하계조사료 7천ha 확보, 조사료 증산-하계조사료 430만원/ha(×7천ha)• (지원단가 상향) 6만원→6.3만원• (전문단지) 전문단지 매년 1천ha 확대• (쿼터 확대) 40만톤 증량, 협회 물량 확대(8만톤 검토)	<p>(협회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제조비 지원단가 상향 필요(8만원)</u>• <u>수입조사료 쿼터 조기배정</u>-수입조사료 쿼터 물량을 30%만 배정해 농가 사용 어려움(수입→통관→농가 절차 2~3개월 소요), 최소 정기물량(70%)우선 배정해 계획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정• <u>한우농가 쿼터 총 증량 확대</u>-중소농 쿼터물량 배정 보다 사료·단미사료 업체 물량을 협회, 농협으로 비중 확대해 총량 증량 필요, 규모농도 생산비 절감차원의 쿼터 필요

주제		정부 추진방향	협회 의견
농가 경영 개선	농가 경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비 지원) 송아지 생산농가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농가 경영비 지원-FTA피해보전직불금, 농가경영회생자금 지원-송아지 번식농가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요건 충족, 이자 상환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저리(1%)의 대환자금 지원 추진-소규모 농가(50두 이하) 대상 운전자금(사료비) 농가당 10백만원 이내 지원(금리 2.5%, 1년 이내 상환)	<p>(협회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리 인하(1%→무이자), 상환기간 연장(1년→3년 이내)• 예산규모 확대(NH농협 20년 기준 300억)• <u>번식농가 대상 송아지가격 하락 긴급대책 방안 마련</u>-<u>일본 송아지가격 급락 긴급대책 실시(’22.5~), 기준가 이하 하락 시 단계별 10만원(1단계), 30만원(2단계) 지원</u>
	유통 방식 개선 및 도매 수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매 확대) 직매 출하 방식 확대-브랜드 경영체 인센티브 강화, 직매 확대, 농협 경영체 유통망 확보-경매·직매 비중 : (기준)6:4→(목표)5:5-경매물량 급증에 따른 도매가격 불안정 요인 사전 차단	<p>(협회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자가소비 도축 규정 일시적 완화</u>-직매방식도 중요하지만, 추가로 소비확대를 위한 자가소비 도축 규정을 일시적으로 완화 건의-지역 소비 확대(자조금 지원)* 소비촉진예산 : 2억 5천-50만원×500두, 지부당 3마리 수준
출하 구조 개선 및 수급 관리 강화	사육 두수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만두 감축-자조금 지원 9만두, 자율감축 5만두-100두 이상 농가 감축물량배정-연간 출하 계획 지속 관리(협회)-감축 미이행 농가 사료구매자금 미배정, 조사료 물량 미배정 등 검토	<p>(협회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소감축 동의-협회 배정 물량에 대해 도별 감축량 배정, 총회 및 교육 등 농가홍보 강화-다만, 혹여 정부가 자율감축에 대한 페널티(사료구매자금, 조사료)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선 반대하고 인센티브 지원 강화
	미경산 육성 및 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육암소 육성) 맞춤형 비육 프로그램 제공, 현장 기술교육 추진, 미경산우 브랜드육 생산확대, 지역축협 역할 강화• (브랜드화) 미경산우 브랜드 경영체 인센티브 지원 강화• (소비 확대) 농협경제지주 미경산우 생산·매입·브랜드 운영, 유통망 확보• (미경산표시제) 브랜드 경영체 중심 미경산우 자율표시 유도	<p>(협회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인증 미경산우 표시제 필요

한우 값 폭락 대응 추진 현황

주제	정부 추진방향	협회 의견
출하 구조 개선 및 수급 관리 강화	송아지 생산 안정제	<p>(협회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先추진, 향후 계약생산제 고려 - 100두이하 규정으로 개선 추진 필요 - 송아지생산안정제도 연구용역 추진해 가임암소 감축 등 꾸준히 개선 요구됨, 계약생산안정제 연구용역-시범사업 등 장기간 시간 소요 * 21년 기준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률 7.2% * 송아지가격하락에 따른 농가 심리적안정선 시급
	한우 수급 관리	<p>(협회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관리) 자조금을 통한 구체적 수급 조절 방법, 절차 근거 마련 - 과잉생산 예측-진행 시 자조금 범위 내 일정기간-물량에 대해 수매-비축, 생산·출하 조정 • (거출금 인상) 거출금 한도(축산물 가격의 1000분의5)와 거출금 격차가 지속될 경우 대의원회에서 거출금 인상 논의 후 농식품부 보고 개선 <p>(협회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 거출금 인상 시 협회비로 일부 지원 토록 개선 요구

※ 위 추진 사항은 2023.2.9. 농림축산식품부 정식 브리핑 전 사전협의 내용으로 실제 발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협회는 의견 관철을 위해 항목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적하는 등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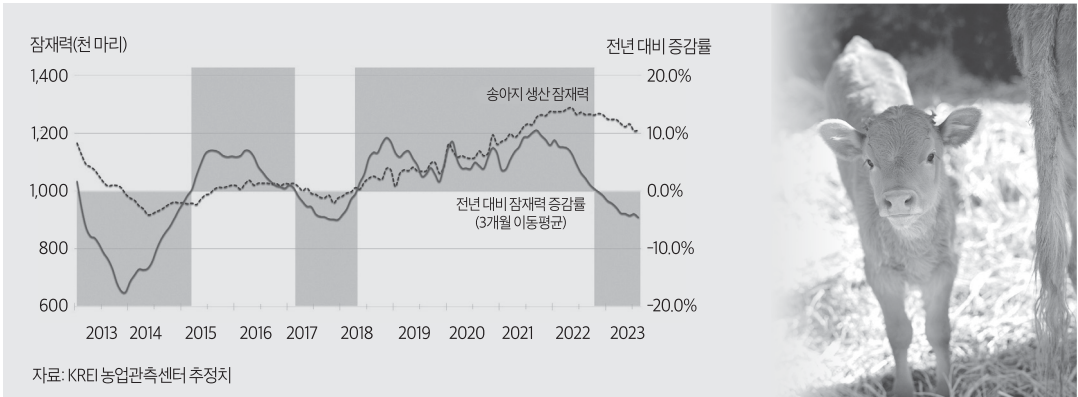
2023 축산-한우 전망

한우 사육마릿수 올해가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

암소 비육지원 사업-농가 자율적 수급조절이 관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농업전망 2023’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됐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이번 농업전망 대회는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를 주제로 △제1부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 미래’ △제2부 ‘2023년 농정 현안’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을 진행하면서 농축산업부문에서 일어난 대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분석·전망했다. ‘농업전망 2023’에서 발표된 축산부문 한우전망을 중심으로 올해의 한우산업을 전망해 봤다.





송아지 생산 잠재력 추이

송아지 생산 마릿수 감소 전망

올해 송아지 생산 마릿수는 지난해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임암소 마릿수는 지난해 대비 증가했지만 암소도축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우 정액 판매량도 전년대비 5.8% 감소해 올해 송아지 잠재력 지수는 지난해 대비 5.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등급 판정 마릿수 증가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수요 둔화 영향으로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했지만 누적된 입식 마릿수가 많아 2024년까지 도축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율적인 암소 감축과 선제적 송아지 생산과 입식 조절 그리고 계획 출하 등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세계 소고기 생산량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생산국의 소고기 생산량 감소로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한 5,924만 톤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가뭄으로 사육 여건이 악화돼 예년보다 조기 도축이 늘어났다. 이에 올해 도축 가능 개체수가 줄어 소고기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6% 감소한 1,202만 톤으로 전망

된다. 생산량 감소로 수출량은 지난해 대비 14% 감소한 139만 톤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올해 소고기 생산량은 초지 여건 개선으로 지난해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호주산 소고기의 아시아 시장 점유율은 미국의 소고기 수출량 감소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올해 소고기 소비량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 1,033만 톤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국의 소고기 생산량도 5% 늘어나 수입은 지난해 대비 9% 감소한 285만 톤으로 전망된다. 올해 수입 소고기(냉동)의 국내 도매원가는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수입단가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소고기의 국내 도매원가는 지난해 대비 4.8% 상승한 kg당 1만4,024원, 호주산은 4.9% 상승한 1만1,306원으로 예상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한·호주 FTA에 의해 올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는 8.0%, 호주산은 13.3%가 적용되며 철폐 시기는 각각 2026년과 2028년이다. 2024년 이후 도매원가는 수입단가가 상승하

나 환율 하락과 관세 인하 등으로 2032년까지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미국산 소고기의 국내 도매원가는 kg당 1만2,715원, 호주산은 1만56원이며 2032년 미국산은 1만2,606원, 호주산은 9,756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육마릿수 올해 정점 찍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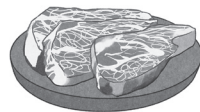
올해 한우육 도축마릿수는 출하 가능한 암소와 수소 사육마릿수 증가로 지난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1세 미만 마릿수는 감소할 전망이지만 입식된 누적 마릿수 증가로 올해 사육 마릿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 암소의 경우 향후 10개월 내에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임암소(15개월령 이상)는 지난해 대비 3.3%, 평년 대비 13.4% 증가한 168만 마리이다. 육성우는 지난해 대비 3.2% 증가해 가임암소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사료가격 상승과 한우고기 도매가격 하락 등으

로 송아지 생산 마릿수 증가세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수소 도축마릿수는 지난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축 가능한 18개월 이상 사육마릿수는 59만 마리로 지난해 대비 7.3% 증가했다. 이중 6개월 내에 출하가 가능한 25개월 이상 사육마릿수는 23만9,000마리로 지난해 대비 11.9%, 평년 대비 22.2% 증가했다. 2024년에 도축이 예상되는 7~17개월 육성우는 지난해 대비 4.2%, 평년 대비 16.0% 증가해 수소 도축마릿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육우 도축마릿수는 지난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6개월 내에 출하가 가능한 15개월 이상 사육마릿수는 7만2,000마리로 지난해 대비 3.1%, 평년 대비 12.8% 증가했다. 2024년에 도축이 예상되는 7~11개월 육성우는 전년 대비 2.9% 감소해 육우 도축마릿수 정점은 올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한우 사육마릿수는 누적된 입식 마릿수 증가로 지난해 대비 0.6%, 평년대비 10.3% 증가한 357만4,000마리로 전망된다. 1

[표 1] 수입 소고기(냉동) 도매가격 전망

구분		2022년	2023년 전망	2024년 전망	2027년 전망	2032년 전망
환율(원/US\$)		1,293	1,304	1,282	1,206	1,195
수입단가 (\$/kg)	미국	8.6	9.2	9.5	9.6	9.6
	호주	6.7	7.1	7.4	7.4	7.4
관세율 (%)	미국	10.7	8.0	5.3	0.0	0.0
	호주	16.0	13.3	10.7	2.6	0.0
도매원가 (원/kg)	미국	13,383	14,024	13,996	12,715	12,606
	호주	10,782	11,306	11,291	10,056	9,756

주 1) 환율은 Global Insight 전망치를 이용함.
주 2) 2022년 수입단가는 관세청 수입 실적을 이용하여 계산함.
주 3) 도매원가는 수입단가에 환율, 관세, 부대비용과 수입업자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22)



[표 2]한우 사육 마릿수 전망(단기)

단위: 천마리

구분		2023년	2022년	평년	전년 대비 증감률(%)	평년 대비 증감률(%)
전체 마릿수		3,574	3,552	3,240	0.6	10.3
	1세 미만	999	1,026	959	-2.6	4.2
	1~2세	1,003	997	899	0.7	11.6
	2세 이상	1,571	1,530	1,383	2.7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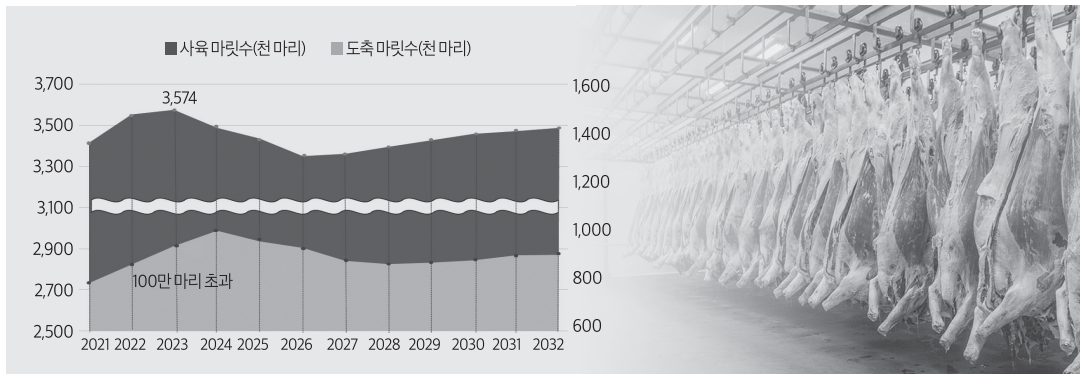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7~2021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사육 마릿수 전망치는 각년도 12월 1일자 기준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22)



세 미만 마릿수는 지난해 100만 마리를 초과했으나 올해는 번식의향이 줄어 지난해 대비 2.6% 감소한 99만9,000마리로 예상된다. 1~2세 마릿수는 지난해 대비 0.7% 증가한 100만 3,000마리, 2세 이상 마릿수는 2.7% 증가한 157만1,000마리로 전망돼 향후 한우 출하 마릿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육마릿수는 올해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가격 하락에 따른 번식의향 감소와 암소 도축 비중 증가 등으로 1세 미만, 1~2세 마릿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암소 비육지원 사업 약정 이행과 농가의 자율적 수급 조절 상황에 따라 사육마릿수 정점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도 소고기 생산량 증가예상

올해 국내 소고기 생산량은 도축마릿수 증가로 지난해 대비 7.7% 증가한 31만 톤으로 전망된다. 올해 출하에 영향을 미치는 2020~2021년 송아지 생산이 늘어 거세우 출하 가능 마릿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암소 사육 마릿수도 누적된 마릿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소 이력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출하 가능한 수소(거세우 포함) 마릿수(18개월 이상)는 지난해 대비 7.3%, 암소 사육마릿수는 3.1%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한우 가격은 지난해 대비 약세가 예상돼 암소 도축 비중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우 사육 및 도축 마릿수전망

2024년까지 도축 증가세 지속
올해 1kg당 평균 1만8,000원 예측

올해 소고기 수입량은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수입 단가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5.4% 감소한 45만1,000톤으로 전망된다. 소고기 공급량은 국내 도축 물량 증가에도 수입량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한 76만2,000톤, 1인당 소비가능량은 14.8kg으로 예상된다.

소고기자급률 40.7%…지난해보다늘어

수입량 감소와 국내 생산량 증가로 국내산 소고기 자급률은 지난해보다 3.0%p 증가한 40.7%로 예측된다. 국내 소고기 생산량은 2024년 33만1,000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사육마릿수 감소로 2027년 30만1,000톤까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반등해 2032년에는 3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소고기 수입량은 한우고기 도매가격 하락과 수입단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고기 도매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에 소고기 수입량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27년 45만8,000톤, 2032년에는 48만3,00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도축마릿수 증가에 따라 2024년까지 지속적인 약세가 예상된다. 올해 한우 평균 도매가격(거세우 기준)은 지난해 대비 하락한 kg당 1만8,000원 내외로 예측되며, 2027년 도매가격은 1만9,000원 내외로 전

망된다. 정부는 한우 가격 하락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암소 비육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우 할인행사 추진, 급식과 가공품 원료육을 수입 소고기에서 한우로 대체 그리고 수출 확대 정책 등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한우 가격은 올해 전망치(1만 8,000원대)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달러 강세 등으로 사료 가격이 상승했으나 올해부터는 국제곡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돼 농가의 경영 부담이 지난해보다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소비가능량은 소고기 공급량이 증가하는 2024~2025년까지 증가 후 2027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15.0kg까지 증가할 전망이지만 국내산 소고기 공급량이 줄어드는 2027년 14.9kg으로 감소하고 미국과 호주산 수입 관세가 모두 철폐되는 2032년에는 15.8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고기 자급률은 국내산 소고기 생산량 증가로 2024년 42.9%까지 증가한 이후 사육마릿수 감소에 따라 2027년 39.7%까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관세 철폐 등에 따른 수입 소고기 증가에도 국내산 소고기 생산량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고물가, 포스트코로나, MZ세대 설 선물 트렌드

코로나19 거리두기 종료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설, 올해 설은 어떤 트렌드를 보였을까.

올해 설 선물세트 트렌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고물가, 포스트코로나, MZ세대의 부상 이렇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적정한 가격대의 실속 선물세트가 부상했다. 이마트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40일간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설 대비 14.1% 높게 나타났다. 고물가 방어를 위해 혜택이 큰 사전예약 기간에 선물세트 구매 고객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의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해 설보다 45.1% 늘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먹거리 안전과 환경보호에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사육한 과일과 정육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MZ세대의 관심사가 반영된 선물세트 등 다양한 가치 소비에 대응하는 선물세트도 볼거리다.

반면 소비자의 고급 식문화와 미식에 대한 니즈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 설 선물세트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의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실속’, ‘프리미엄’ 상품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 3사는 고금리, 물가 인상 등으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진 것을 반영해 5만~10만 원 이하의 가성비·가심비 상품을 대거 선보였으며, 백화점들은 고객들을 사로잡기 위해 프리미엄 선물세트에 집중했다.

이마트의 ‘조선히otel 한우세트’의 경우 평균 가격이 30만 원 이상임에도 사전예약 기간 3,000세트가 넘게 판매됐다. 축산 선물세트 매출 순위 중 10만8,000원에 판매한 미국 냉동 LA식 선물



합리적 수준 실속 선물세트 인기
프리미엄 상품 등 양극화 뚜렷

세트를 제외하고는 2위부터 4위까지 20만원 이상의 피코크 한우 선물세트가 차지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월 9일까지의 매출 중 10만원 이상의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보다 10% 늘었다. 롯데마트에서는 특히 프리미엄 선물세트인 ‘마블나인 한우 등심혼합세트 1호’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홈플러스는 실용적인 제품으로 구성된 상품들이 인기를 끌었다. 특히 구아·국거리·불고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한우 혼합 선물세트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 40%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초고가 선물세트에 붙는 5스타 기준을 강화했다. 한우의 경우 마블링 기준을 7~9단계에서 8~9단계로 조정했다. 롯데백화점



은 일반 한우보다 탄소 배출량이 65% 적은 저탄소 한우 선물세트를 선보였으며 포장재인 보냉 가방도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다.

현대백화점은 100만원 이상 현대명품 한우 넘버나인 등 프리미엄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렸으며 10만원대 소포장 한우 선물세트 물량도 지난해 대비 40% 이상 준비하며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경기침체가 지속돼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으며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프리미엄 세트를 선물하는 고객층도 확고해졌다”며 “대형유통업체들의 실속,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강화하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키워드로 풀어본 2023 설 선물 트렌드



키워드1 고물가 vs 양극화

올해 설에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실속', '실용'을 강조한 합리적인 가격의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40일간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설 대비 14.1% 높게 나타났다. 사전예약 기간에 선물세트 구매 고객이 몰리는 상황이 몇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속 선물세트가 부상함에 따라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해 설보다 45.1% 늘었다. 이마트는 이런 수요를 고려해 본판매에서도 실속, 실용 트렌드를 반영한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축산 선물세트는 7개 인기 상품에 대한 할인율을 지난 설 대비 5~10% 포인트 늘리며 기존보다 가격을 낮췄다.

온라인에서도 10만원 미만의 선물세트 상품의 수요가 높다. GS샵 온라인몰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 1월 6일까지 열흘간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구매 건수는 지난해 설과 비교해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대별로는 10만원 미만 상품 판매 비중이 80%로 지난해 62% 대비 18%p 증가한 반면 10만원 이상은 21%에서 16%로 5% 포인트 감소하고, 20만원대와 30만원대는 지난해 8%와 9%에서 올해 2%로 각각 6% 포인트와 7% 포인트 감소했다. 10만원 미만의 선물 상품 비중이 크게 늘고, 10만원 이상의 비중은 크게 감소한 것이다. 반면에 양극화는 더욱 깊어갔다. 일부 명절 프리미엄 선물세트의 가격은 역대를 호가하며, 초프리미엄화 되고 있는 것이다. 바이어들은 "오히려 가격대가 어중간하면 더 안팔린다"라며 "선물세트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프리미엄 한우 선물세트를 40% 이상 늘렸다.

키워드2 포스트코로나 시대

올해 유통업체를 관통하는 트렌드는 누가 뭐래도 '친환경'이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소비자들은 먹거리 안전과 환경보호에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사육한 과일과 정육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미 많은 고객이 상품을 소비하는데 있어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중시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제조·유통 기업들도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올 설 축수산 선물세트에 '스티로폼 제로' 전략을 본격 도입했다. 냉장 축산 선물세트 중 약 40%인 15개 품목, 수산 선물세트 중 약 20%인 7개 품목 포장재를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 재질로 바꿨다. 선물세트에서 스티로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는 보냉이 필요한 축산, 수산 선물세트다. 이마트는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선호텔 냉장한우 세트 전품목(10개 상품) 및 피코크 황성축협 한우 구이 세트 4개 상품, 프리미엄 굴비 세트 등 작년 추석 가장 많이 팔렸던 인기 선물세트에 '스티로폼 제로' 전략을 도입했다.



종이포장한 이마트 조선호텔 냉장한우 세트

키워드3 MZ세대의 부상

MZ세대의 선물세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기성세대 중심의 설 선물세트에도 변화가 생겼다. MZ세대 소비자를 타겟으로 사과·배, 한우 등 전통적인 명절 선물세트 외에 트렌디한 선물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한우선물세트도 MZ 감성을 입고 새로운 변화를 꾀했다. MZ 세대의 '스몰 럭셔리(작은 사치)'에 주목, 백화점에서 지인들과 '근사한 한끼'를 즐기거나 명품 식품들을 선물을 전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현대백화점은 유명 셰프와 레스토랑 레시피를 적용한 최고급 스테이크 재료로 구성된 선물세트 7종을 선보였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스몰 럭셔리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프리미엄 식재료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명절 연휴를 활용해 캠핑 등 여행을 떠나거나 홈파티를 여는 이들도 있어 조리가 쉽고 맛도 고급스러운 스테이크 선물세트가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스몰럭셔리 상품



일본 농민단체, 축산위기 돌파 집회 및 서명운동 전개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 일본 '농민운동전국연합회(농민련(農民連))'¹)와 '국민의 식량과 건강 지키기 운동 전국연합회(전국식건련(全国食健連))'는 11월 30일 도쿄 가스미가세키(霞が関) 농림수산성 앞에서 축산농가가 경영을 계속할 수 있는 긴급대책 실시를 호소
 - ▷ 사료, 연료 등 자재 급등으로 축산농가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송아지 등을 동반
 - ▷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농가 등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국의 생산자로부터 모은 500여 명의 서명을 곁들인 긴급요망서를 농림수산성에 제출



농림수산성 앞에서 개최된 축산위기 호소 긴급행동 집회

¹) '농민운동전국연합회'는 일본 농업조직, 농업인으로 구성된 전국조직의 하나, '농업과 농가경영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1989년 1월 결성, '일본농업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생산조정 및 가격하락, 쌀의 수입자유화에 반대, WTO농업협정 개정을 요구, 식량자급률 제고, 중간상인이 없는 산지직거래 확대 등을 지향하고 있음

- 축산위기 돌파 중앙행동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축산농가와 농업인, 정당 관계자 등이 모여 온라인을 포함해 300여 명이 참석
 - ▷ 먼저 농민련 하세가와 토시로(長谷川敏朗) 회장이 "일본 축산은 최대 위기로, 이 상황이 계속되면 붕괴가 시작되어,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 ▷ "전국을 돌면서 수렴한 농가의 목소리를 전하러 왔습니다. 사료값은 코로나 전에 비해 1.5배가 되어 4,000억엔(약 4조원)이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800억엔(약 8,000억원)의 보조로 나머지는 농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 ▷ "기존 대책의 연장으로는 전혀 불충분하며 농가에 대한 긴급 지원을 요구합니다. 현장의 외침을 들어주세요"라고 호소

- 이후 축산농가와 농업인들이 잇따라 어려운 현장 상황을 호소
 - ▷ 온라인으로 참가한 치바현(千葉県) 북부낙농농업협동조합의 타카하시 켄지(高橋憲二) 조합장은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워, 빚을 거듭 내고 있지만, 인내의 한계를 넘어 바보 같은 상황입니다."
 - 농축산물만 비용에 걸맞은 가격에 판매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며, 지금은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임
 - ▷ 또, 치바시(千葉市)의 낙농가, 가네타니 마사시(金谷雅史)씨는, 현지의 동료가 데려온 송아지를 옆에 세우고, "계속 증가하는 빚을 거듭하면서 365일, 우유를 짜고 있습니다. 해를 무사히 넘기지 못하는 낙농가가 대부분이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 "소를 키워서 밥이나마 제대로 먹으면 된다는 생각이지만,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이대로 1년이 지나면 슈퍼 섀빈에서 우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낙농은 궤멸의 위기입니다"라고 호소

- 일본 축산농가는 지금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 사료값이 2년 전과 비교해 47%, 비료값이 45%, 광열동력비가 28% 오르는 등 생산비가 급등한 반면 축산물 가격은 침체돼 경영은 악화일로
 - ▷ 특히 낙농은 우유를 짜면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비참한 사태, 일본 농업신문의 청취조사(12월 5일)에 따르면 올해 4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낙농가는 약 400호(34%) 감소했으며 연말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 도산폐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
 - ▷ 사료 등 자재의 가격 상승은 이상 엔저와 세계적인 가격 급등이 원인, 축산물 수요 감소도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 등이 배경,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타개할 수 없으며 해결에는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



축산농가 서명을 첨부한 긴급요망서를 제출



■ 농림수산성에 제출한 ‘긴급요망서’에서는 생산비용 상승으로 축산농가가 전례 없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도 현행 제도에서는 급등분의 일부만 보전하고 있다며 비용 상승분의 전액을 보전하고 비용 상승분을 가격전가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 등 수요자에게 강력한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

- ▷ 서명을 받은 농민련에 따르면 경영이 여의치 않아 축산농가가 폐업하거나 자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이대로는 국내 축산물과 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
- ▷ 정부가 추경에 포함시킨 우유 수급 대책을 위한 저능력 소 조기 퇴출 지원책도 유효한 대책이 아니며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농민련 등은 앞으로도 축산농가 지원을 요구하는 긴급요망서에 생산자 서명을 받는 활동을 계속해 연말에 다시 농림수산성에 제출예정

자료 : 일본농업협동조합신문('22.12.1)

일본, 송아지가격 급락 긴급대책 실시

■ 일본 정부는, 5월 중순 이후 육용 송아지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를 통해, 긴급대책을 실시하고 있음

- ▷ 육용 송아지 생산 농가의 의욕을 유지함으로써, 육용우 생산 기반 약화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
 - 육용송아지 품종별 월별 평균 가격이 발동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연내에 경영개선 노력을 하는 농가에 대해 판매 두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 송아지가격(흑모와규): ('22.1~4) 73~74만엔 → ('22.5) 68만엔 → ('22.6) 66만엔 → ('22.10) 60만엔(최저) → ('22.12) 65만엔
- ▷ 발동기준가격은 2단계이며, 1단계는 1만엔, 2단계는 3만엔을 지급

- 품종 구분은 ①흑모, ②갈모, ③기타 육 전용, ④교잡, ⑤유용의 5가지

■ 경영개선 노력은 8가지로 메뉴화되어 있으며, 3가지 이상을 실천하는 것이 지급조건

▷ 경영개선 노력 실천 메뉴 (8가지)

- ①경영분석(경영관리 연수회 참가 등), ②사료효율 개선(사료분석을 바탕으로 급이 설계 등), ③송아지 질병 방지(설사 방지제 투여 등), ④구충·방충 대책(방충망 설치 등), ⑤소 관리 철저(발급 감기 등), ⑥한해대책(우체보온 등), ⑦서열대책(우사내 차광 등), ⑧첨가물의 영양 보충(비타민 첨가 등)

▷ 아울러 ‘지역단위’로 ‘와규송아지 산지강화계획’을 수립하고, ‘송아지 산지 강화사업’을 실천할 경우 1만엔을 가산 지급

- 산지 강화사업 메뉴 중 1가지 이상을 실천하는 것이 조건

▷ ‘송아지 산지 강화사업’ 실천 메뉴(6가지)

- ①발정 발견가·분만 감시장치 활용(기기구입, 리스), ②질병 방지를 위한 적절한 백신 접종(어미 소, 송아지 백신 접종), ③조기출하를 위한 지역 내 일관생산(지역 내 일관생산 그룹 기획), ④영양상태를 강화하는 인공 포유(대용유 활용), ⑤1년 1산을 위한 고도의 영양 관리(대사 프로파일 실천), ⑥유전적 다양성을 배려한 교배(근친교배 계수를 고려한 인공수정)

■ 본 대책은 2022년 6~12월까지의 임시·긴급조치로 추진하며, 예산은 102억 28백만엔(약 1천억원), 발동기준가격 수준은 ‘송아지가격안정제도’의 보증기준가격보다는 높고, 육용 송아지생산비보다는 낮게 설정

▷ 이번 대책은, 시장 평균가격이 보증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100% 보전하는 ‘송아지가격안정제도’와는 별도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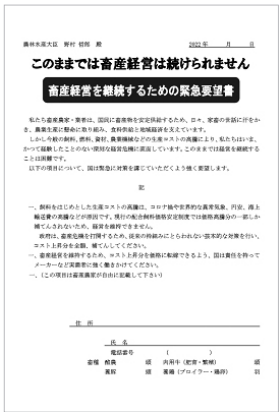
- 흑모와규의 경우, 발동기준가격(1단계 60만엔, 2단계 57만엔)은 송아지가격안정제도의 ‘보증기준가격’ 54.1만엔(22년) 보다 약 3~6만엔 정도 높음
- 참고로 21년도 육용 송아지생산비(비용합계-부산물가격)는 62만 296엔

■ 결과적으로 이번 대책은 ‘송아지가격안정제도’가 발동되기 이전의 생산비 이하 가격하락 분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번식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22.12)



축산위기 돌파 긴급집회 포스터



축산농가 서명서

한우 도·소매가격 연동성 분석과 시사점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 요약 및 시사점

- 한우가격은 20년 1월 코로나 사태 이후 가정소비 증가 등으로 21년 9월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 특히 22년 10월 이후 급락
 - 월평균 가격변동은, 상승기 및 하강기에 1% 정도이며, 급락기에는 9% 이상으로 농가가 느끼는 충격은 매우 큼
- 한편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매가격에 잘 반영되지 않는 도·소매 가격 연동성 문제의 해소가 소비 활성화 주요 과제로 주목받고 있음
 - 22년 12월(4주) 한우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27.2%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은 8.5% 떨어지는데 그침
- 월별 도·소매 가격 연동성을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0.7정도로 보통이며, 도매가격 변동분은 주로 다음달(M+1) 소매가격에 반영됨
 - 한편 가격 상승기는 도매가격 상승분을 소매가격에 적극 반영하는 반면, 가격 하락기는 소매가격 반영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21년도 한우고기 유통비용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매가격을 100%으로 할 때 평균 농가 수취율은 51.9%(유통비용률 48.1%)로 나타남
 - 항목별로는 도소매 이윤이 18.1%, 유통단계별로는 소매단계 36.1%
 - 업체별로는, 대형마트의 이윤 및 소매단계 마진이 가장 높았으며, 결과적으로 생산자 수취율은 43.0%로 가장 낮았음

시사점

1. 우선 가격하락기 대형마트의 가격연동성제고를 촉구할 필요가 있음
2. 아울러 영향력 있는 농협의 판매채널을 통한 소매가격 인하선도 필요
3. 한우전문판매점의 유통플랫폼 구축으로, 가격연동성 영향발휘 조직 육성

1. 코로나시대 한우가격 동향과 도·소매가격 연동성 문제

◎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우가격 동향

-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가정 내 소비 증대 등 코로나 특수로 한우 가격은 상승하였으나, 2021년 9월 최고가격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 2022년 10월 이후 급락
 - 2022년 12월(4주) 평균 한우 도매가격은 15,029원으로 전년 12월 20,639원 대비 27.2%(△5,610원) 하락

구 분	한우가격 상승기	한우가격 하락기	한우가격 급락기
기간	19.12.~21.9.	21.9.~22.9.	22.9.~22.12(4주)
가격동향(원/kg) (한우평균 도매)	18,506 → 22,620 (4,114원) ↑	22,620 → 20,031 (△2,589원) ↓	20,031 → 15,029 (△5,002원) ↓
월평균 변동율	0.95%	△1.01%	△9.13%
주요 사건	코로나 팬데믹(가정소비 증가) 경기호황(주가, 부동산 상승)	코로나 엔데믹, 물가상승, 경기침체, 이자 상승, 가처분 소득 감소	경기침체, 이자 상승 10만톤 무관세 수입 이태원참사 국가애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주: 월평균 변동율은 복리<산식> $r = \text{Exp}[(\ln(7\text{월가격}) - \ln(1\text{월가격})) / (\text{경과개월수} - 1)]$

- 한우가격 상승기(19.12~21.9), 하락기(21.9~22.9), 그리고 급락기(22.9~22.12)의 월평균 변동율을 보면, 상승기 0.95%, 하락기 -1.01%로 하락기 속도가 상승기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남
 - 한우가격 급락기는 월평균 9.13%의 빠른 속도로 떨어져, 농가가 느끼는 충격은 상당한 수준

◎ 가격 급락기 수급영향 요인

- 금리상승 및 경기침체 가운데,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제로 물가 대책' 시행 및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적 애도 분위기' 등이 2022년 9월 이후 '한우 가격 급락의 방아쇠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됨
 - 수입 소고기 10만 톤(40만 두 상당) 관세 제로 조치는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시행
- 이태원 참사 발생(10월 29일)으로 국가적 애도분위기 속에 한우고기의 수요 실종 가속화 (※ 국가애도기간 선포: 10월 30일~11월 5일(7일))
 - 당시 한우협회 주관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4일간) 진행 예정이었던 '한우숯불구이축제'도 30일 조기마감

◎ 최근 한우 도·소매가격 연동성 문제

- 한편, 최근 한우 도매가격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매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어 도·소매가격 연동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2022년 12월(4주)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12월 대비 27.2%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소매 가격(등심 1등급)은 8.5% 떨어지는데 그침

구 분	21년 12월 (A)	22년 12월 (B)	변동 (B/A)
한우평균 도매가격(지육) [원/kg]	20,639	15,029	27.2% [△5,610] ↓
등심 1등급 소매가격 [원/kg]	108,780	99,554	8.5% [△9,226] ↓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주 : 21년 12월 가격은 월평균, 22년 12월 가격은 12월 4주(12.19~23) 평균

2. 한우 도·소매가격 연동성 분석

◎ 한우 도·소매가격 연동성 분석 전제조건

- 월별 한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상관분석으로 가격 연동성을 분석
 - 도·소매가격 연동성은,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높은 것으로 판단 (상관계수는 1과 0사이 값을 가짐)
- 한우고기 냉장육은 통상적으로 유통기간이 45일 정도 임을 반영, 도매에서 소매까지는 1~2달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가정
 - 상관분석은, 도매가격은 당월(M)로 정하고, 소매가격은 ① M월, ② M+1월, ③ M+2월 등 3가지로 나누어 분석
- 분석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로 하고, ① 가격 상승기(20.1~21.9)와 ② 가격 하락기(21.9~22.11)로 나누어 각각 분석

◎ 한우 도·소매가격 연동성 분석 결과

도매-소매	당월-당월(M-M)	당월-다음달(M-M+1)	당월-다다음달(M-M+2)
가격 상승기(20.1~21.9)	0.62	0.73	0.67
가격 하락기(21.9~22.11)	0.18	0.69	0.62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 도매가격 변동이 가장 높이 소매가격에 반영되는 시기는 다음달
 - 당월 도매가격과 다음 달 소매가격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음
 - 도·소매가격 상관계수는 0.7 정도로 높지 않음
- 가격 하락기에 비해 가격 상승기의 도·소매가격 상관계수가 높음
 - 도·소매가격 '당월-다음달'상관계수는 가격 상승기 0.73으로 가격 하락기 0.69보다 높게 나타남
 - 도매가격 변동이 소매가격에 반영되는 정도는, 가격 하락기에 비해 가격 상승기에 더 많이 반영됨
- 또한 도매가격 변동이 소매가격에 반영되는 속도는, 가격 하락기보다는 가격 상승기에 빨리 나타남
 - 도매가격 변동이 당월 소매가격에 반영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당월-당월' 상관계수는 가격 상승기 0.62로 가격 하락기 0.1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3. 한우고기 유통단계와 유통비용(2021년)

(참고자료 : '2021년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2022.4.), 축산물품질평가원)

◎ 평균 유통비용 구조

- 생산자 수취율 : 51.9% (소비자가격 = 100%)
 - 유통비용률 : 48.1%
 - 한우 마리당 소비자 가격 19,767,298원에서 생산자 수취분은 10,259,591원, 유통비용은 9,507,707원
 - => 소비자가격에서 농가가 수취하는 부분은 51.9%, 유통비용은 48.1%
- 항목별 (소비자 가격 = 100%)
 - 직접비 9.1%
 - 간접비 20.9%
 - 도·소매 이윤 18.1%
 - => 항목별로는 간접비와 이윤이 대부분
- 유통단계별 (소비자 가격 = 100%)
 - 출하단계 1.5%

- 도매단계 10.5%

- 소매단계 36.1%

=> 유통단계별로는 소매단계 비율이 36.1%로 유통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

◎업체별 유통비용 구조

- 업체 구분: 대형마트, 슈퍼마켓, 정육점(슈퍼마켓은 SSM, 하나로마트, 일반슈퍼마켓)
- 소매단계 유통비율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 21.6%, 슈퍼마켓(하나로마트) 24.8% 정육점 28.5%, 일반음식점 등(단체급식, 온라인) 25.1%
- 소매업체별 유통비용 비율(%)

구분		대형마트	슈퍼마켓	정육점
소비자가격		100.0	100.0	100.0
생산자수취율		43.0	54.9	57.5
유통비용률		57.0	45.1	42.5
항목별	직접비	8.1	8.9	9.7
	간접비	26.7	18.8	17.2
	이윤	22.2	17.4	15.6
단계별	출하단계	1.4	1.3	1.9
	도매단계	8.6	11.1	11.5
	소매단계	47.0	32.7	29.1

- 생산자 수취율은 정육점이 57.5%인 반면, 대형마트는 43.0%로 제일 낮음
- 이윤 비율도 대형마트 22.2%, 슈퍼마켓 17.4%, 정육점 15.6% 순으로 대형마트 이윤이 높은 편
- 소매단계 유통비용은 대형마트 47.0%, 슈퍼마켓 32.7%, 정육점 29.1%로 대형마트의 소매마진이 월등히 높음
 - 한편 도매단계는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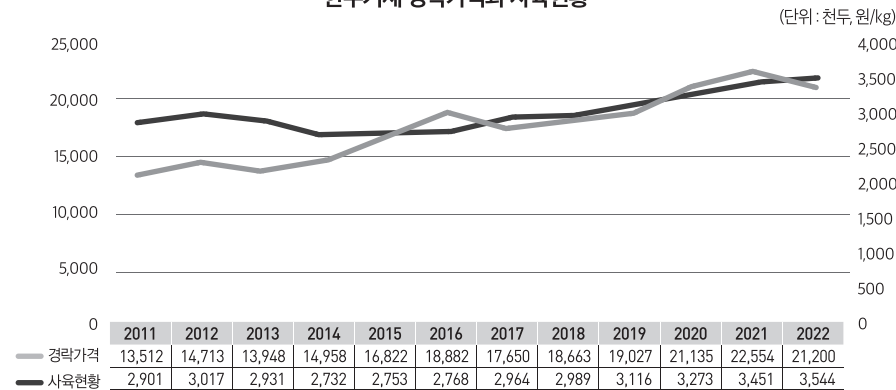




한우거세 경락가격과 사육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경락가격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거침없는 상승추세였다. 사육두수는 2012년 300만두에서 다소 낮아졌다가 2016년부터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최근 2년간은 전례 없는 코로나로 인해 경락가격이 더욱 더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코로나가 줄어들고 경기가 하락하면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공급과잉과 맞물려 2022년부터는 하락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락가격의 변동성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배합사료 비용이 평균 400원대 수준에서 600원 수준으로 무려 40-50%증가된 점이다. 더불어 조사료의 가격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최근 1년간 농장들을 방문한 결과, 대부분의 농가에서 시세하락에 따라 두당

매출은 감소하였고 비용은 증가하였다. 더불어 대외여건의 악영향으로 농가에서 급여하는 수입 조사료의 수급에도 문제가 생겨 급여되는 조사료의 종류가 알파파, 티모시, 연맥 등에서 톨페스큐, 라이그라스, 벼짚 등으로 바뀌어 전체적인 품질이 한 단계 낮추진 상황으로 변하였으며, 급여량도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이 외에도 톱밥 값의 상승으로 바닥재의 사용량도 줄어들었다. 경기가 활성화 될 때보다 불황일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업은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욱 더 합리적인 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선 종합적인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내 농장의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야기되는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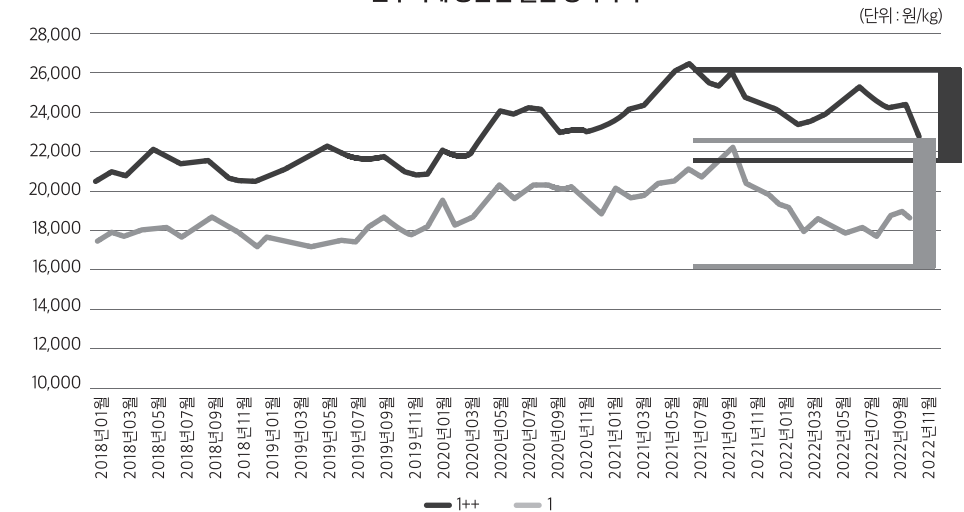
한우거세 경락가격과 사육현황



대한 투자 및 비용절감이 동반되어야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거세비육 기준에서 생산비의 70%수준을 차지하는 사료비의 절감은 매우 중요하다. 너무 비용절감만 한다면 오히려 등급결과를 낮아지게 할 것이다. 이는 분명 현명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과거 하인즈케첩을 생산하는 유명한 글로벌 기업 크래프트하인즈는 비용절감만을 고집한 정책을 펴내면서 장기적인 성장동력까지 제거함으로써 고전했던 사례가 있었다. 그렇다면, 비용절감과 적절한 투자유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발생하게 된다. 고품질로 위주로 갈 것인가?

도체중 위주로 갈 것인가? 또는 어느 구간이 적정 도체중과 적정 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까? 번식우와 송아지에서든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선 투자비용과 수익에 대한 대략적인 계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만, 복잡한 계산은 차치하고 우선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최근 한우거세 등급별 월별 경락가격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9월 이후 하락장이 발생할 때에도 1++비율은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반등세를 나타낸 반면, 1등급비율은 2022년 9월부터 꾸준히 하락하였으며 그 폭도 높았다는 점이다.

한우거세 등급별 월별 경락가격



수의칼럼

저자소개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는 가축질병진단 및 시험연구, 동물용 의약품의 효능시험연구, 가축질병제어 인공수정·수정란 이식연구교육 및 교재개발, 환경분쟁에 따른 가축피해보상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가축계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류일선 소장은 평생을 가축과 농가 지킴이로 살아온 분으로 1984년 경북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국립축산과학원에 들어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의연구사 및 수의연구관으로서 대가축 및 축산농가와 협력해 왔다.
前 한국소임상수의사회 회장 / 前 국립축산과학원 수의연구사·수의연구관
前 한국수정란이식학회 회장 / 前 한국우병학회 회장



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장
수의학 박사

봄철 해빙기 한우 털갈이, 이 감염증 송아지 건강관리 요령



최근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사료비 급등과 가격하락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어 10여 년 전의 파동보다 심한 고통의 질곡에 신음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딱 부러지는 대책마저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다가오는 봄철은 평균기온 전망은 평년(11.6~12.2℃)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주로 받아 포근한 날이 많겠으나,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으며,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다는 기상청의 날씨 전망에 따라 특히 털갈이가 많이

나타나고, 신생 송아지의 출생이 많은 이유로 보온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1. 한우 털갈이 원인, 발생 및 예방 관리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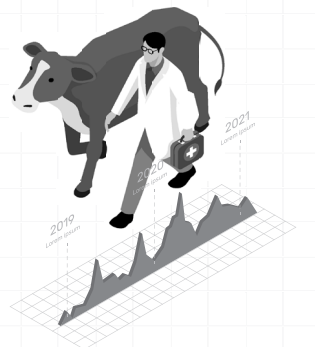
소는 생리적으로 90~120일 주기로 모든 모발이 빠지고 다시 나기를 반복하는 데, 또 겨울철 추운 외기의 온도 환경은 모발의 성장을 자극하며,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도 모발의 탈락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외에 유전, 직사광선, 영양 조건(비타민과 미네랄), 분만 계절, 산차 동도 모발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단백질 섭취량이 소의 피모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며, 만약 단백질 하나만의 문제라면 동일한 사료로 동일한 사양관리를 하는 농장의 경우 전체 우군 내 대부분 개체에서 같은 문제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번식 및 비육농장에서 전체 사육 마릿수 중 5~10%만 모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단백질 부족만을 원인으로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즉 다른 요인을 추가로 고려해 봐야 한다.

피모에 영향을 주는 영양적 요소로는 비타민B 그룹 중 바이오틴이라는 성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바이오틴은 반추동물의 반추위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에 의해 합성되는 영양소인데, 부족하면 탈모가 일어날 수 있다. 바이오틴은 추가로 공급한 필요가 없을 만큼 소의 체내에서 충분한 양이 합성된다고 얼마 전까지 여겨져 왔으나, 최근 다수의 연구 자료를 보면 1일 영양소 섭취량의 35% 이상을 배합사료(곡물사료)로 섭취하는 소는 바이오틴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즉 배합사료 급여량이 많을 경우 바이오틴이 부족해지면서 피모와 발굽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털갈이가 늦어지는 것은 영양소 결핍보다 유전 및 환경적인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2. 한우의 이감염증의 원인, 발생 및 전염 경로, 증상 및 진단과 구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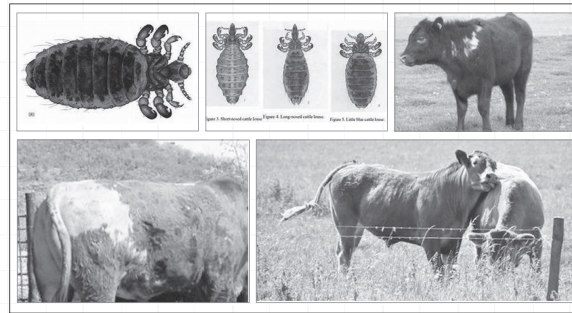
소에 기생하는 이의 종류는 붉은몸이(Bovicola bovis), 짧은코소이(Haematopinus eurysternus), 짧은코소꼬리이(H. quadripertusus), 소가는이(Linognathus vituri), 소털이(Damalina bovis), 소푸른이(Solenopotes capillatus)등이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며 대부분이 숙주특이성을 나타내고, 직접 및 간접 접촉에 의하여 전염되며, 대개 계절적 출현성을 보여 가을과 겨울철에 수가 많고 영양상태가 불량하거나 또는 집단사육의 경우에 많이 기생한다. 우리나라 소 이의 월별 기생상태를 조사한 결과 기생률은 <표1>과 같다.



[표 1] 우리나라 소이의 월별 기생률

월별	조사두수	감염두수	감염률[%]
2	45	27	60.0
2	27	11	40.7
2	15	11	73.3
3	25	13	52.0
4	14	5	35.7
8	35	10	28.6
10	44	36	81.8
12	37	32	86.5
계	242	145	36.7



- 가. 이는 피부에 자극을 주어 소가 긁거나 문지르거나 핏대를 만들며, 불안, 털의 손상, 가족의 손실을 가져 오며 체중과 젖 생산의 감소를 초래한다.
- 나. 감염된 동물은 피모가 거칠어지고 현저한 비강진(잔비늘증)이 나타난다.
- 다. 심하게 감염된 소는 중증의 빈혈과 함께 폐사하기도 한다. 송아지에 심하게 감염되면 모구증(털망울)의 원인이 된다.
- 라. 동물체에서 이를 찾으려면 등쪽이나 경측(목)부의 털, 음모, 꼬리털 등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여러 가지 유기염소제 살충제나 유기인제를 이용하여 구제하면 효과가 있으며 실제 사용시는 전문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이가 이들 약제에 대한 저항성을 재빨리 획득한다는 사실이고, 이의 수가 적고 번식이 시작되기 전인 가을에 모든 동물을 치료하고 축사를 살충제로 분무하여 예방한다.

3. 건강한 송아지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

신생 송아지의 손실 즉 폐사는 임신 270일 이전의 유산이 2~2.5%, 270일 이후의 분만전 사산과 출생 후 24시간 동안에 3.5~5%, 출생 후 24시간에서 28일 사이가 3%, 생후 29~84일에 1% 또는 84~182일에 1%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Roy, 1990). 따라서 유·사산을 제외하고 송아지의 7~9%가 생후 3개월 이내에 폐사하나, 호주에서는 보고된 바에 의하면, 2~4%로 나타나고 있다.

한우 송아지 건강을 위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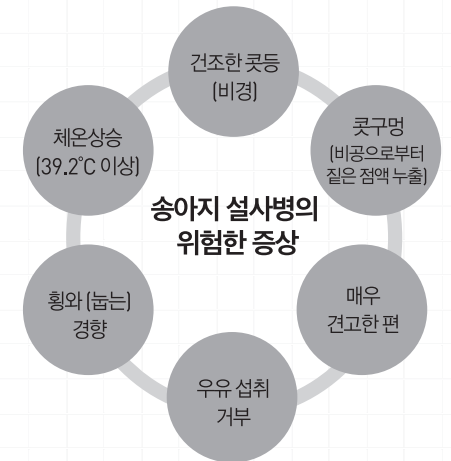
한우 송아지 건강을 위한 기본 원칙

- 가. 병원균(세균, 바이러스 등)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한다.
- 나. 송아지가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 때까지 노출을 지연시킨다.
- 다. 초유와 예방 접종을 통해 획득면역을 극대화한다.
- 라. 송아지를 보호하고 건조하게 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송아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후 처음 몇 시간 내에 초유 항체를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며, 철저한 위생관리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4. 송아지 설사병의 위험한 증상

정상적인 송아지가 배변할 때 분변은 한 가지 색과 경도(딱딱함 정도)가 있는 데, 우유를 섭취한 송아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짙은 노랑색이나, 많은 변이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으로 공기에 노출되면 대변이 어두워지고 단단해진다. 사료를 먹는 송아지에서는 정상적인 분변은 더 갈색이며 약간 더 단단하고 색깔이나 냄새는 설사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5. 폐렴 및 기타 호흡기 질환의 발생 유인 및 관리요령

폐렴은 특히 송아지 사육밀도가 높고 환기가 잘 안될 때 우사내에 사육하는 송아지에서 난제로, 미국의 경우, 태어날 때부터 6개월령까지 송아지 폐사의 약 15%를 차지하며, 우사 온도와 상대 습도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호흡기 질환은 우사가 뜨겁고 건조한 우사 조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시원하고 습한 곳에서 더 흔하게 발생된다.

주로 개선된 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환기 불량은 습한 환경, 생존율 증가와 공기 중 물방울을 통한 감염 확산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송아지에서 차가운 공기와 펜의 높이는 상태를 악화시키며, 청소 펜 및 호스의 정기적인 사용과 분뇨로부터 공기중에 폭발성 입자를 유입시킬 수 있다. 많은 먼지 및 암모니아 농도(배출이 잘되지 않은 펜의 소변)는 폐에 자극을 일으켜 송아지가 폐렴에 걸리기 쉽다. 감염된 송아지를 조기에 발견하고 항생제로 치료하면 폐사와 성장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될 것이다.

우사는 결로가 없게 환기가 잘되어야 하며, 최소 2m 높이의 단단한 벽을 사용한 다음 셔터 또는 블라인드를 사용하여 공기 흐름의 제어(특히 시원한 날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환기가 잘 안되는 우사는 잘 배치된 배기팬으로 결로의 원인이 없는 공기 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해빙기를 맞이해 한우에서 다발하는 털갈이, 이 감염증 및 송아지 설사병과 호흡기 질병들의 관리요령에 대해 정리했으며, 우리 한우 농가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히 대비해야 겠다.

전문가 칼럼



김병숙
한국종축개량협회
경기인천지역본부장

위기상황일수록 능력위주 우군으로 가져가야

연초부터 한우가격 하락폭이 심상치가 않다. 작년 하반기부터 한우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금년 1월까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반면에 생산비는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단기간에 끝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지속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생산원가 급등과 한우가격의 하락이 실제 농가 경영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우 사육두수는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난 2019년에 이미 300만두를 넘어섰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2만두를 훌쩍 넘어 역사상 최대 두수로 증가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1월 축산물도매시장에서 한우(거세) kg당 경락가격이 17,0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니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농가의 경영비는 한우 거세우 기준으로 최소 kg당 19,000원은 유지되어야 한데 현실과 격차가 크다. “수급균형과 가격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2023년을 맞이한 만큼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가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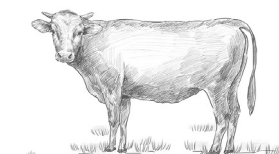
[표 1] 연도별 한우 사육두수 및 송아지 생산두수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961,511	3,078,184	3,227,181	3,415,332	3,527,940
암 컷	1,890,596	1,971,048	2,064,498	2,178,118	2,237,685
수 컷	1,070,925	1,107,136	1,162,683	1,237,214	1,290,255
송 아 지 생산두수	911,902	958,046	1,015,799	1,065,453	1,075,815

자료 : 통계청, 축산물가격제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우산업은 일시적 반사이익을 누리기만 하고, 다가올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면해 왔다. 특히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수급불균형에 대하여 지금과 같은 상황을 우려하여 전국한우협회 차원에서 저능력미경산우 비육사업을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추진하였으나,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해 많이 아쉽고 안타깝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로 다가온 한우산업의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과거 한우가격이 폭락하고 한우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농가에서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능력이 좋은 소를 먼저 처분하는 것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좋은 소부



전문가
칼럼



터 팔거나 비육하여 출하시킨다. 이것은 임시변통이 될지 모르나 그 효과는 별로 오래가지 못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장 경영에 더욱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 선조들도 “농부아사(農夫餓死)하더라도 침궐종자(枕厥種子)”라고 했다. “농부는 굶어죽더라도 종자는 베고 죽는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종자를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여기서 종자는 당연히 쪽정이가 아닌 알찬 좋은 씨앗을 의미하고, 이는 우리 한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우의 경우 개량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이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축주의 잘못된 판단으로 농장의 기둥이 되는 우량한 씨암소를 도태시켰다면 10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셈이다. [표 2]는 10년의 세월동안 얼마만큼 개량이 되었는지 보기 위하여 한우(거세우)의 도축성적을 주요형질별로 비교한 내용이다. 10년간 개량의 성과를 살펴보면 도체중은 44kg, 등심단면적 7.4cm², 등지방두께 -0.3mm, 근내지방도 0.8점의 개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22년과 2012년 한우(거세우) 도축성적 비교

연도	도체중(kg)	등심단면적(cm ²)	등지방두께(mm)	근내지방도(점)	가격(원)
2012년	417	89.6	13.1	5.4	14,720
2022년	461	97.0	12.8	6.2	20,842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표 3] 구분별 한우(거세) 도축성적 비교

구분	도체중(kg)	등심단면적(cm ²)	등지방두께(mm)	근내지방도(점)	비고
2022년 전체평균	461	97.0	12.8	6.2	
우량암소 후대축	527	121.2	12.7	8.7	
초우량암소 후대축	540	126.0	12.4	8.8	

자료 :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도체중만 따져도 두당(44kg × 20,842원 = 917천원) 917천원의 큰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암소의 능력에 따른 차별화를 통하여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있는지를 [표 3]을 통하여 분석해 보았다.

[표 3]은 2022년 한우(거세) 전체평균과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매달 선정하는 우량암소 및 초우량암소 후대축의 거세우 도축성적을 비교 하였다. [표 3]에서 거세우 전체 평균과 우량암소 후대축의 성적 차이는 도체중 66kg, 등심단면적 24cm², 등지방두께 -0.1mm, 근내지방도 2.5점으로 4가지 경제형질 모두 우량암소 후대축이 탁월하게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우수 유전자원을 가진 암소 능력에 따라 얼마만큼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많은 한우 농가에서는 1등급의 인기 정액만 구입하여 교배하면, 개량이 잘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반쪽짜리 개량’이다. 왜냐하면, 개량의 절반은 암소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정액은 내 의지대로 구입할 수 없는 반면, 암소의 경우에는 원하는 시기에 농가 개체들에 대한 선발·도태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우개량은 정액뿐만 아니라, 암소의 능력에 따른 선발과 도태가 중요하다. 생산비가 급등하고 한우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처럼 위기상황일수록 한우 우수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과감하고 정확한 선발과 도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한우 우수 유전자원 확보 위한
과감하고 정확한 선발-도태 중요



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연장) 요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
다. 이번 달은 주택임대차 보호법률에 대해 살
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및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무허가건축물)에도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전세 및 월세 등의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의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 기간이 끝난 때에 종전의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위 경우 연장된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다만, 임차인이 2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거나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즉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한 임차인,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 조건을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 연장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의 기간이 2년 연장되지 않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위와 같이 임대인의 연장계약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이 종전의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2년 연장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한편 임대인의 연장계약 거절 통지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종전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의 연장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임차인의 연장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연장 요구거절 사유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연장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① 임차인이 2기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한 경우)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의하여 임대차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⑧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임대차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⑨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최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와 관련하여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실제 거주할 것을 목적으로 연장계약을 거절할 경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주택 양수인(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임대 목적 주택 매수인)은 종전 임대인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8호 규정인 임대차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있어, 양수인이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기간에 임차인에게 연장계약 거절 통지를 하였다면 임차인의 연장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더구나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연장계약 요구를 한 이후 임대차 목적 주택을 양수인이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기간 내에 임대차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이유로 연장계약의 거절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위와같은 사항 등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농가 (99m²이하)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신청 요령

(가설건축물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방법)



■ 가축사육시설의 종류

-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일반건축물
- 가설건축물: 간이 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비가림 시설은 포함, 운동장은 제외)
 -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 10호) 연면적 100m²이상의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과 지붕이 합성수지로 된 것과 지붕이 합성강판과 합성수지로 된 경우 합성강판 면적이 1/2 이하인 것 포함)
- 기타: 상기 외의 시설 등으로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슴·면양 또는 울타리(등록 기준) 시설

■ '20.1.1일부터 신규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는 건축물대장,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허가필증이 있어야 축산업 등록허가 가능('19.12.31일까지 등록허가 농가 중 변경 신고허가 농가는 해당하지 않음)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닌(창고, 주택 등) 경우에도 축산업상 가축사육시설 기준에 충족되고 가축이 사육되는 경우 등록허가 가능
- 건축물의 용도가 "축사"라도 실제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는 경우(조사료, 자재 창고 등) 허가(등록) 면적에서 제외(가축을 사육하는 면적만 등록허가 면적으로 기재)
 - ※ 100m² 미만의 가설건축물(간이축사용)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이 없어도 축산업 등록허가 가능
 - ※ 100m²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소)의 경우 가분법에 따라 배출시설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배출시설 신고허가필증 없어도 축산업 등록허가 가능

* 신고대상(m² 이상): 소 100, 돼지 50, 면양·염소·사슴 닭 오리 메추리 200

※ 축산업 등록허가 대상 시설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축산업 등록허가 가능(축산업상 등록허가 제한 규정 없음)

-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사육제한 구역내에서 사육이 허용된 두수만 사육가능(환경부서 담당)

- 축사 및 시설·장비 배치 현황도(농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배치도' 가능)

1 축산업 등록 허가 신청 기준(법령별 기준)

■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대상 및 신청 서류 등

- (서류 및 시설) ① 사육시설 설치, ②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 필증, ③ 건축 신고허가필증, ④ 소독시설 설치, ⑤ 종사자 교육이수증, ⑥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등
- * ②, ③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구분	축산업 (사육시설)			가축분뇨법 (배출시설)			건축법 (건축물)				가전법 (소독시설)		
	등록 제외	등록	허가	신고 제외	신고	허가	가설건축물		일반건축물		의무		
							신고 제외	신고	신고	허가			
등록허가 서류·시설	설치 제외	사육 시설 설치	사육 시설 설치	제출 제외	설치 신고증	설치 신고증	제출 제외	축조 신고 필증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일부 설치	소독 시설 설치	
한우·젖소	-	50㎡ 이하	50㎡ 초과	100㎡ 미만	100㎡ 이상	90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50㎡ 이하	50㎡ 초과	
돼지	-	50㎡ 이하	50㎡ 초과	50㎡ 미만	50㎡ 이상	1,000㎡ 이상							
면양·염소· 사슴	등록 * 통풍구조, 환기시설, 울타리 설치			200㎡ 미만	200㎡ 이상								
닭·오리	10㎡ 미만	50㎡ 이하	50㎡ 초과	200㎡ 미만	200㎡ 이상	3,000㎡ 이상							
메추리	10㎡ 미만	10㎡ 이상	-	200㎡ 미만	200㎡ 이상								
거위·철면조· 타조·꿩·기러기	10㎡ 미만	10㎡ 이상	-	- (신고허가 제외)									
말	- (등록·허가 제외)			100㎡ 미만	100㎡ 이상	900㎡ 이상							
개	- (등록·허가 제외)			60㎡ 미만	60㎡ 이상								
기타 가축*	- (등록·허가 제외)			- (신고허가 제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 동용, 가축비 가림용 비닐 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지 붕 또는 벽이 합성수지, 지 붕면적의 1/2 이하 합성강 판 재질)		* (대인)간이분 무용 소독장 비, (차량)고 압분무기, 신 발소독조, 울 타리, 방조망			* (대인)간이분 무용 소독장 비, (차량)고압 분무기, 신발 소독조, 출입 기록부, 방문 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	

* (관상조류)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 (곤충)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저, 애반딧불이, 장수풍뎡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매몰지	○ 주 소 : ○ 소유자 :	내 (면적 ㎡)
시설현황	○ 축사 동 ㎡	
	○ 관리사 ㎡	
	○ 퇴비장 ㎡	
	○ 소독시설	
	○ 방역시설	
	○ 기타	
악취저감 장비·시설 현황	○ 시설 또는 장비명 : 예) 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악취탈취시설, 축분고속발효기, 음수처리기, 용수처리기, 미생물배양시설, ...	
장비현황	○ 트랙터 대	
	○ 스kid로우더 대	
	○ 경운기 대	
	○ 화물차 대	
가축사육규모 (번식, 비육 등)	○ 계획(신규) - 번식 마리, 비육 마리 ○ 사육두수(지위승계) - 번식 마리, 비육 마리	

5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공통제출서류)

1.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내역

구분	퇴비사(M³)		액비시설(M³)		정화(M³)	기타(M³)
	발효조	저장조	발효조	저장조	공법	임시보관시설 (슬퍼리피트 등)
1동	00.00 (W × L × H)	00.00 (W × L × H)	00.00 (W × L × H)	00.00 (W × L × H)		
2동						
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신고허가증 참조(배출시설 신고미만은 제외)

2. 악취저감시설 설치 내역 및 저감 방법

악취저감 시설명	저감 방법
안개분무, 액액세정, 액비순환, 마설치	마설치 예시) 축사 바닥에 톱밥(왕겨) 00cm를 사용하고, 사용하여 함수율 관리하고, 월 1회 이상 미생물제제 살포 및 교반 관리하여 악취저감

3.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처리 계통도(예시)



7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개정 2019. 12. 31.>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한우 ·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타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기타는 가축의 종류를 적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신청인	①성명 홍길동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000000-1000000	
	③주소 집 주소 기재	④전화번호 (집)000-0000	

⑤ 사업장 명칭 농장명 기재

⑥ 사업장 소재지 00시군 00면 000리 00번지(도로명 00로 000)

[] 전화번호:010-0000-0000 []

⑦ 가축 사육 시설	구분	동수(동)	면적(㎡)	⑧ 비고
	고정건축물			
	가설건축물	1	49	
	기타(사슴·염소·양·울타리)			
계		1	49	

⑨ 사육 마릿수 5두 (번식우 3, 비육·육성 2, 송아지 1)

⑩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²,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3년 00 월 00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00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 류(신청인이 법인인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 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 년 00 월 00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	---------------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 · 등록자 관리 · 정기점검 · 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 · 등록자 관리 · 정기점검 · 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
임 · 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
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 ·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 · 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 · 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 · 등록 및 교
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
산업 허가 · 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 · 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0 월 00 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활용 동의자)	신청인	홍길동(서명 또는 인)
------------------------------	-----	--------------

유의 사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설로서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사슴 · 면양 또는 염소 울타리의 경우는 울타리의 반경을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가축의 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분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
을 적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적
습니다).

3. ⑩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3호가목2) · 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외의 사
육시설 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 ·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리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리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8 가축사육업 한우·육우 허가신청서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2. 31.>

가축사육업

[√]한우·육우, [√]허가[]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15일
신청인	①성명 홍길동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000000-1000000		
	③주소 집주소 기재	④전화번호 [집]000-0000		

⑤ 사업장 명칭 농장명 기재

⑥ 사업장 소재지 00시군 00면 000리 00번지[도로명 00로 000]

[전화번호 : 010-0000-0000]

가축 사육 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시설의 형태	⑩가축의 종류	⑪사육면적(㎡)	⑫사육마릿수 (적정사육두수)
	예1	가설건축물 [51~99.99]	방사	번식우	90	9[두당 10㎡]
	예2	가설건축물	계류	번식우	90	18[두당 5㎡]
	예3	가설건축물	방사	비육우	70	10[두당 7㎡]
	예4	가설건축물	계류	비육우	80	16[두당 5㎡]
	계				000	0000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00 월 00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인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0 월 00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청인	홍길동(서명 또는 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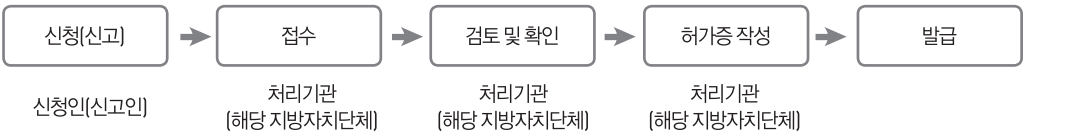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00 월 00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청인	홍길동(서명 또는 인)
------------------------	-----	--------------

유의 사항

-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적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 ⑨~⑬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동별로 시설의 형태, 시설형태별 사육면적, 가축의 종류,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두수를 적습니다.





하루 한 끼는 왕족처럼

2023 외식업 트렌드 ‘맛있는 희소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와 함께 연구, 집필한 '2023외식업트렌드'를 공개했다. 배민은 급변하는 외식업 시장에서 내년의 외식업 트렌드를 먼저 찾아 제시해 외식업 종사자들이 한 발 빠르게 성공 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23외식업트렌드를 내놨다. 2023외식업트렌드는 배민과 트렌드 전문가 김난도 서울대 교수 및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연구하고 집필했다.

출처 : 스포츠서울, 뉴스1, 중도일보



배달의민족-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공동연구 2023 외식업 7대 트렌드 'C.O.N.C.E.P.T'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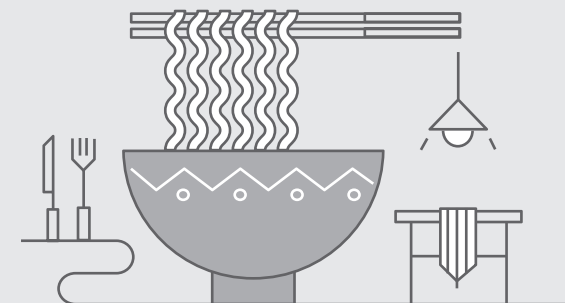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매년 '트렌드코리아' 시리즈를 출간하는 등 사회 문화의 변화를 읽어내는 트렌드 분석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양 기관은 외식업 트렌드 도출을 위해 거시적 시장 환경 분석부터 시작했다. 외식 시장을 이끄는 전문가 인터뷰와 새로운 식문화 발신지의 경관 요소, 사람들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관찰했다. 더불어 해외의 외식업과 식문화 관련 사례 스터디를 연구하고, 다양한 사례에 함의된 가치를 추출했다. 또한 소비자 조사와 배민·B마트 데이터의 상호 교차 검증을 실시해 엔데믹 시대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 양상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외식업계가 주목해야 할 트렌드 키워드를 발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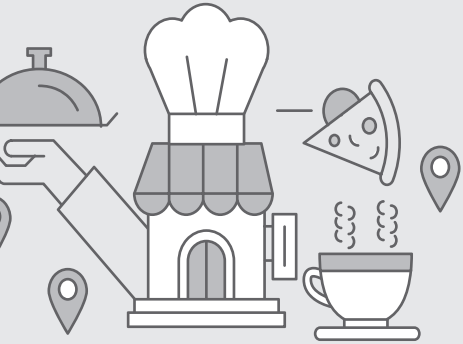
2023외식업트렌드의 7대 키워드를 관통하는 주제어는 'C.O.N.C.E.P.T'이다.

‘금쪽같은 내 한 끼’...한 끼만큼은 제대로!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2023외식업트렌드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람과 교류하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스스로 몰두할 수 있는 콘셉트를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다"며 "콘셉트는 이제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고 말했다. 콘셉트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에 맞춰 외식업 사장님도 우리 식당만의 강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날카로운 콘셉트, 확실한 색깔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꼽은 키워드는 '금쪽같은 내 한 끼 (Casual but special)'다. 가성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내려지며 단순히 '효율 대비 저렴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만족으로 기준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 요즘의 소비자들은 '한 끼의 전략적 소비 집중'을 통해 자신만의 행복과 만족을 높이고자 한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만찬을 즐기고, 먼 거리도 찾아가서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줄 서서 기다리는 고생도 감수한다. 이에 점심은 간단하게 먹더라도 저녁에 호텔에서 식사하는 등 적어도 한 끼 정도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즐기려는 소비 행태가 포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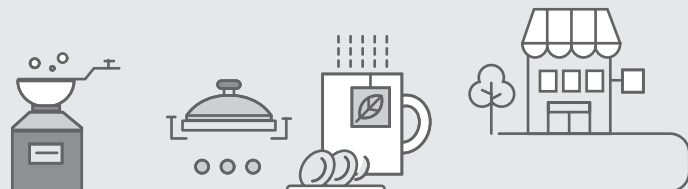
일식 '오마카세'부터 가게 사장님이 알아서 안주를 내주는 '이모카세', 디저트도 천천히 즐기는 '애프터눈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트렌드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배달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최근 3개월간의 배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점심보다 저녁에 사이드 메뉴를 포함해 주문하는 경우가 1.7배 많았다. 아침이나 점심은 빠르고 간편하게 끼니를 때우다가도 저녁 한 끼 만큼은 제대로 푸짐한 저녁을 즐기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려면 사장님이 소중한 한 끼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뽕족한 콘셉트를 찾아야 한다고 제시한다. 희소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판매량이 정해진 메뉴 구성이나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는 방식 등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 실제 배민 이용자 조사 결과, 희소한 음식을 남들에게 뒤통지 않도록 먹어보고 싶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77%에 달했다.

2023외식업트렌드에 담긴 7가지 키워드 내용은 배민외식업광장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앞서 배민은 지난 2021년 직전 1년간의 배민 데이터를 분석해 계절별 인기 급상승 메뉴부터 주요 주문시간대 등 고객의 취향과 주문 트렌드를 분석한 '배민트렌드2021'를 펴냈다. 이후 '배민트렌드2022'는 배민외식업광장에서 매달 새로운 소식으로 사장님들과 만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권용규 외식업솔루션센터장은 "2023외식업트렌드를 통해 외식업 종사자분들이 다음 한 해의 식문화 트렌드를 미리 파악하고, 한발 빠른 성공 전략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 외식업트렌드 7대 키워드 C·O·N·C·E·P·T

금쪽 같은 내 한 끼

Casual but special:
my precious meal

선택적 집중! 한끼만큼은 더욱 특별하게 즐겨요

밀키트, 간편식품 등으로 평소 식사를 빠르고 간편하게 때우는 대신 한 끼를 비싸고 천천히 먹는다는 뜻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리사가 엄선한 식재료를 제철 요리를 만드는 '오마카세'다.

미션 EAT-파서블

On a mission: Eat-possible

식사도 게임처럼! 도전하고, 성취하고, 인정받아요

오픈시간에 맞춰서 맛집을 가는 '오픈런'을 하거나 일부러 특이한 조합의 음식을 선호하는 등 식사를 위해 일부러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는 '푸드잇파서블'도 확산하고 있다.

정답식사

Need for a well-curated meal

선택은 피곤해요! 식사에도 정답을 알고 싶어요

사장님이나 아르바이트생 등 전문가가 추천한 음식 조합을 선호하거나 '월드컵 치킨'과 같은 상황에 맞는 음식을 찾는 경향을 말한다.

식부심

Confidence in eating

나만의 자부심!

나만의 입맛과 식문화 지식으로 나를 알려요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민초단', 채식 등 음식에 대한 지식과 개성 있는 식습관으로 '나'를 표현하는 현상이다. 음식에 대한 지식과 개성있는 식습관이 정체성 어필의 원천이 되는 시대를 맞은 것이다.

스토리다잉

Every dish has its story

먹는 것 이상! 오감으로 즐기는 색다른 경험을 원해요

음식을 시각적으로 예쁘게 만들거나 식당에 확실한 컨셉트를 내세워 마니아 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오래된 공중목욕탕을 카페로 개조해 기성세대에게 추억을, 젊은 세대에겐 신선한 경험을 준다.

식사이클링

Power of food recycling

시작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친환경 할래요

식사할 때 늘어나는 쓰레기를 줄이는 걸 말한다. 식사 후의 처분단계까지 고려한 친환경 식문화시대 트렌드로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로 주문하면 할인쿠폰을 주는 캠페인 등이 있다.

친절 프리미엄

Time to show your kindness

친절이 귀한 시대, 오히려 친절 경쟁력을 만들어요

키오스크 등 무인화가 확산하며 인간이 줄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찾는 현상이다. 메모지에 손편지를 주는 업체가 있었으며, 인터넷엔 감사함을 표현하는 '배달 손글씨 스티커'를 팔기도 했다.



금연-다이어트-운동 새해건강 삼총사 작심삼일 극복하기

고단했던 2022년이 저물고, 바야흐로 새로운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낸 만큼,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저마다 이루고 싶은 계획과 포부를 심기일전 결심하는 모습들이다. 그러나 미국 UCLA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이렇게 야심에 찬 새해계획을 실제 달성하는 비율은 전체의 8%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사람들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거창한 목표는 우리의 뇌를 금방 지치고 싫증나게 하며 이내 계획을 포기하게 만든다. 따라서, 새해계획을 작심삼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내 능력 안에서 충분히 달성이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서울아산병원 건강플러스, 잡포스트, 헬스경향



흡연욕구, 5분간 참기 + 금연의지 주위에 알리기

새해의 건강목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금연이다. 금연 성공을 위해서 꼭 알아 뉘야 할 것은 바로 '니코틴 의존도'인데, 금단증상을 일으키는 니코틴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금연방법이 달라진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을수록 금연을 했을 때 금단증상도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흡연자의 경우 의지만으로는 금연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전문의와의 상의를 통해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금연방법이다.

흡연욕구는 대개 5분 이내에 절정을 이루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5분간 양치를 하거나, 심호흡을 하는 것이 흡연욕구를 잊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금연은 개인의 의지만큼이나 주변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금연 의지를 주위에 널리 알리는 것이 좋다.



꾸준한 다이어트 실천...매일 식사일지 작성 추천

두 번째 건강목표,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일 식사일지를 쓰는 것을 추천한다. 매 끼니는 물론 간식이나 소량의 음식 섭취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사일지를 쓰는 것은 현재 식습관을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식사일지에 먹은 음식의 종류와 양을 꼼꼼히 기록하고 식사할 때의 감정을 함께 기입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는 배고픔 때문에 먹은 것인지 불안이나 분노 때문에 음식을 섭취한 것인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릇 크기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같은 양이라도 작은 그릇에 담겼을 때 음식은 더 많아 보이게 되고 이는 실제 포만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운동량 서서히 늘려야

세 번째 건강목표, 운동!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운동량을 서서히 늘리는 것이 좋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운동량을 늘리면 근육통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무리한 운동계획보다는 평소 생활 속에서 계단 오르기, 가까운 거리 걷기 등 신체활동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새해 건강결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창한 목표보다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건강을 만든다.

연령별 건강 지키는 운동법

새해목표로 빠지지 않는 '운동'. 하지만 운동 역시 작심삼일로 그치지 않으려면 연령과 체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자신에게 딱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연령별로 적합한 운동키워드를 알아봤다.

20~30대 '에너지틱'

움직임 큰 활동적인 전신운동 좋아

20~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신체 나이는 젊지만 하이힐과 키높이 구두 착용, 운동부족, 잘못된 자세습관 등으로 인해 척추와 관절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젊은 층은 큰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활동적인 전신운동으로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좋다. 비교적 강도가 높고 활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달리기를 비롯해 수영, 계단 오르기, 요가, 축구 등은 에너지 소비가 많고 전신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다.

허리와 관절 등에 특별한 통증과 질환이 없다면 단시간에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스피닝, 헬스 등의 기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도 좋다. 한 자세로 오래 근무하는 직장인은 경직된 근육을 유연하게 하는 플라잉 요가, 기구 필라테스 등 움직임이 큰 스트레칭 운동도 효과적이다.

40대 '과욕금지'

소도구 이용한 근력운동·체중관리 중점

40대는 몸의 노화가 가속화하는 시기로 각종 질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세대다. 근육 역시 40세 이후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큰 강도 높은 운동보다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심을 부르는 종목이나 운동은 체력소모와 과욕으로 인해 부상을 당할 수 있어 피해야 한다. 평소 운동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1kg 아령이나 500ml 물을 채운 페트병 등의 소도구를 이용하는 근력운동으로 관절 주위 근육을 자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40대는 체중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다.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남, 여 모두 호르몬 변화를 겪어 체중이 늘기 쉬운데 이는 각종 성인병뿐 아니라 관절에 부담을 줘 퇴행성 관절염을 부추길 수 있다.

체중이 1kg 증가하면 약 8kg의 무릎 하중이 가해지는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골프와 수영, 걷기 등으로 꾸준히 체중관리를 해야 한다. 걷기는 빨리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며 주 5일 정도 운동하며 거리를 늘려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주당 24km를 넘는 과도한 운동은 지양해야 한다.

50대 '외상방지'

안전 중심, 균형감 높이는 체조·요가 등 맨몸운동

50대 여성은 폐경기로 인해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이 줄어 골다공증 위험이 높고 남성은 운전과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어깨 관절에 빨간 불이 켜진다. 따라서 이 시기는 무리해 운동하기보다는 신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 중심의 '외상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근육의 유연성을 돕고 균형감을 기를 수 있는 체조, 요가 등 맨몸 운동과 고정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다. 고정자전거의 경우 자신의 최대 맥박수의 8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타야 하고 시속 5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운동해야 한다. 또 외상방지를 위해서 운동 전후 10분 스트레칭을 하면 몸의 긴장을 풀고 근육을 이완해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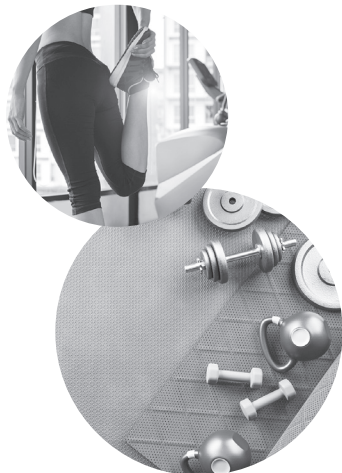
60대 이상 '체력유지'

단전호흡, 체조, 평지걷기 등 저강도 위주로

60대의 운동목표는 '유지'다. 이 시기는 몸에 누적돼 있는 질병들이 하나 둘 통증으로 나타난다. 특히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활동 제한과 통증이 함께 나타나는 만큼 관절을 보호하는 것이 운동의 목적이다. 따라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 몸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동종목은 자신의 신체 중 일부를 다른 곳에 의지한 채 할 수 있는 종목이 좋다. 또 심장이나 폐, 관절 등 신체 전반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전신운동을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단전호흡, 평지 걷기, 체조 등 약한 강도로 하루 30분 이상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운동을 할 때는 낮시간 야외에서 일광욕을 하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춥거나 덥다면 신체 활력이 떨어지고 부상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날씨를 고려해 운동 장소와 강도를 결정해야 한다.



전국한우협회 대한한우사료

- 한우 사료 품질과 가격의 표준점 제시
- 농가 주도 생산·원가공개·매달 가격 연동 시행

대한한우 사료의 원료구성

옥수수, 루핀후레이크, 대두박, 옥배아박, 채종박, 야자박, 팜박, 소맥피, 단백피, 비타민+미네랄혼합제, 황토, 미생물제, 당밀향+감미제, 번식개선편제

대한한우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

비육 구분		어린송아지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비고	
급여사료명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생후 월령		2~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출하월령 28개월 이상 출하체중 750kg 이상	
체중 (kg)		150		200	220	240	260	290	320	350	380	420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50	670	690	710	730	750		
일당증체량(kg)		0.8		0.8 - 1.0								1.0 - 1.2								0.6 - 0.8						0.84 kg	
조사료	건조	2.0		자유채식								2.0	2.0	1.0													
	젖질											1.0	1.0	1.0	2.0	2.0	1.5	1.5	1.5	1.0	1.0	1.0	1.0	1.0	1.0		
배합사료 급여량				3.0	3.5	4.0	4.5	5.0	5.5	6.0	7.0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5	9.0	9.0	8.5	8.0		

대한한우 번식우 사양 프로그램

사육구분		번식우육성(반추위, 소화기관 완성기)							임신우														포유우	
월령 (개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경산우										포유중	
체중 (kg)		130 ~ 150	150 ~ 170	170 ~ 190	190 ~ 210	210 ~ 230	230 ~ 250	250 ~ 265	270 ~ 285	290 ~ 305	310 ~ 325	330 ~ 345	350 ~ 365	370 ~ 385	390 ~ 405	410 ~ 425	430 ~ 445	450 ~ 465	470 ~ 485	490 ~ 505	510 ~ 515	520 ~ 535		
일당증체량 (kg)		0.6 ~ 0.8							0.4 ~ 0.6														0.6	
1일사료 급여량 (kg)	구분	번식용 중송아지							임신우														임신우	
	배합	2 ~ 3 kg							3 ~ 4 kg														4 kg	
	섭취량	배합							배합														배합	
	조사료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증감 요인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임신 7개월부터 10% 증가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대한한우 어린송아지				대한한우 번식우				대한한우 육성기				대한한우 비육전기				대한한우 비육후기			
적용범위 생후2개월~6개월				적용범위 5개월~임신우				적용범위 생후7개월~14개월				적용범위 생후15개월~22개월				적용범위 생후 23개월~28개월			
•미아리산과 탄닌 함유에 의한 고창증과 설사 예방 •천연물질에 의한 항병력 강화 •반추미생물과 효모제 강화 •식이섬유와 비타민/미네랄 강화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 •대용유함유에 의한 빠른 입블 이기				•발정과 수태를 최적으로 위한 충분한 영양소 공급 •번식전용 비타민/미네랄 설계 •황토급여에 의한 미네랄 보충 •성정을위한충분한단백질공급				•성장을위한충분한단백질공급 •골격과 내장의 발달을 촉진 •적정에너지 공급 •섬유소 공급에 의한 반추위와 소화기관 안정화 •높은 수준의 비타민과 균형 있는 미네랄 공급				•반추위기능을정상적으로유지 •최대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비타민 A 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 향상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영양소 균형 •비육효과를 최대로 발현시키기 위하여쾌적한환경 조성필요				•근육내 지방 발달 극대화로 육질 향상 •단백질과 에너지의 균형 있는 배합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영양소 균형 •고급육 효과를 최대 발현시키기 위하여 TDN을 높여 줌 •비타민 A 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을 향상 •과비방지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어린송아지	20.0	2.5	20.0	번식우	14.0	2.0	15.0	육성기	15.0	2.5	20.0	비육전기	13.0	2.5	20.0	비육후기	12.0	2.5	20.0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10.0	0.9	1.5	70.0	15.0	0.8	1.2	68.0	15.0	0.7	1.2	70.0	15.0	0.7	1.2	73.0	15.0	0.7	1.2	75.0

사료가격 투명화/합리적 가격/생산비 절감

고품질 한우사료 ‘대한한우’

한우 생산비 중 농가소득을 좌우하는 사료비 비중이 50%이상!
사료가격 결정의 주체는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23년 2월 협회전용 사료 ‘대한한우’ 가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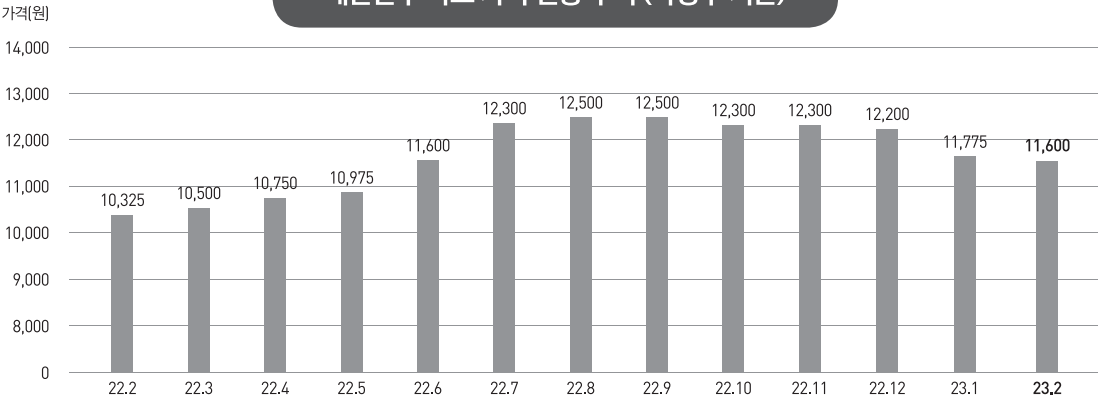
공장출고가 기준(운송비 등 추가비용 반영안된 가격임)

※매월 1일 환율 및 유가(곡물가)변동 등에 따라 기준가격 변동



어린송아지	번식우	육성	비육전기	비육후기
14,950	11,450	11,600	11,800	12,050

대한한우 사료 가격 변동 추이 (육성우 기준)



한우마당

Hanwoo Journal



전국한우협회 회원 소식지 **한우마당**은
매달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한우마당은 대한민국 전체 한우 사육두수 약 70%에 달하는
협회 회원과 전후방업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연간 15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양질의 정보는 물론,
축산관련 잡지 중 가장 많은 구독부수로
높은 전파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광고문의

- 1) 광고 문의 및 접수: 025251053@daum.net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월간 한우마당」 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참고)
- 2) 광고규격: 188mm×257mm / 내부여백 7~10mm 필요
- 3) 광고금액: 홍보팀 문의 (장기계약 우대)
※ 「한우마당」 광고업체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홍보관 메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원고 및
광고시안
마감

주요 배부처 및 일정

- 1) 협회 대의원 및 임원 등 지도자, 전국 지회·지부, 일반 회원농가
- 2)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국 각 지자체 축산과
- 3) 전국 수의대학 및 동물생명, 축산학과, 특성화 대학 등
- 4) 전국 농축협 및 관련 유관기관, 한우협동조합, 전문지 언론사
- 5) 사료 기자재 등 한우마당 광고업체



구독안내

한우마당은 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전국한우협회 홍보팀으로 문의주십시오.
☎ 02)525-1053 (내선 202 또는 218)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https://www.ihanwoo.org>
- 한우마당 뉴스 웹진 <http://www.ihanwoo.kr>



제24권 제2호(통권 195호) / 2023년 2월 10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삼주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광 고 이기찬 제 작 HNCOM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2층
전 화 02)525-1053 / 02)597-2377

편 집 김재광
발 송 자산포스트
팩 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인터넷 한우마당 www.ihanwoo.kr
한우협회 누리집 www.ihanwoo.org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전국한우협회